





정책연구. 2020-26

# 경남지역 공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한상우

## 연구진 profile

---

한상우

- 역사문화센터/조사연구위원
  - 문화유산관리/박물관학전공
  - 경남지역 읍성현황과 보존·활용방안
  - 경남지역 최치원 문화유산 기초연구 I
-



## 요약 및 정책함의

### □ 연구배경 및 목적

- 현재 경남도에는 국·공립 44개, 사립 21개, 대학 5개 모두 70개의 박물관이 건립되어 운영 중임. 이중 41개 공립박물관은 경남도나 각 시군 지자체의 지원에 의해 건립된 박물관으로서 지역문화 보존과 활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재 공립박물관을 비롯한 박물관은 새로운 사회환경과 이용객의 요구 사항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요구받고 있음
- 본 연구는 지역 공립박물관의 구체적인 현황과 현재 직면한 여건변화 상황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공립박물관의 운영을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도출·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 □ 연구 주요내용

-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남지역 소재 공립박물관 기본 현황
  - 공립박물관 운영 설문조사 현황
  - 중앙정부 박물관 정책 동향 분석
  - 국내·외 박물관 운영 사례 검토
  - 공립박물관 운영 관련 각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공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도출·제시

### □ 경남지역 공립박물관 현황

- 경남지역 공립박물관은 총41개소이며, 이중 2020년 기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을 받은 도내 공립박물관은 17개소임
- 지역의 17개 인증 공립박물관의 설문조사 결과, 전문 인력 충원과 시설 개선 필요,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강화, 타 박물관과의 협업 강화 등의 현실적 요구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이 나타남

□ 경남지역 공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 공립박물관의 기대 역할

- 해당 시군 대표박물관으로서 지역문화의 보존과 사회교육의 중심
- 지역 대표 문화기관으로서의 지역 문화·관광의 허브 기능 수행
- 지역박물관의 현재·미래를 선도하는 지역 대표박물관

○ 박물관 운영 기본방향 설정

- 생활밀착형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및 접근성 확대
- 4차 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 추진
- 지역 대표박물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및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

○ 지역공립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박물관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 전개가 필요함

- 지역 대표 문화기관으로서의 운영 프로그램 확대
- 박물관과 지역 문화예술기관과의 협업 강화
- 박물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ICT 기술 적용 확대 및 고유 콘텐츠 개발 강화
- 박물관 수익선 다변화와 홍보를 위한 마케팅 기획 및 실천 강화
- 박물관의 기능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력과 조직체계 구성
- 경남지역 공립박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한편, 정부와 지자체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 전개가 필요함

- 박물관 재정 지원 강화 및 운영 자율성 확대 보장
- 공립박물관 운영 공인 인증 및 개선책 지원
- 경남도 공립박물관 통합 정보사이트 운영
- 경남도 공립박물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 지원 공모사업 전개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콘텐츠산업지원센터와 지역 공립박물관간의 협업 강화

# 차 례

I. 개 요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	2
3. 연구방법 .....	2
II. 경남지역 공립박물관 기본현황 .....	3
1. 박물관의 정의 및 이론적 접근 .....	3
2. 경남지역 공립박물관 기본현황 .....	4
3. 경남지역 공립박물관 운영실태 현황과 시사점 .....	8
III. 관련 정책 현황 및 우수 박물관 사례 분석 .....	19
1. 중앙정부 정책 및 관련사업 현황 .....	19
2. 국내·외 우수 공립박물관 운영 사례 .....	25
3. 관련 사례로 본 박물관의 변화 및 수요 환경 .....	32
IV. 경남지역 공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	37
1. 공립박물관 운영 기본방향 .....	37
2. 공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	40
참고문헌 .....	47
부록 .....	49



# I. 개 요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 경남지역은 과거로부터의 풍부한 문화적 전통을 자랑하는 곳으로, 이러한 문화적 전통과 그 구체적인 산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전시하기 위한 다양한 박물관이 존재함. 현재 경남도에는 국·공립 44개, 사립 21개, 대학 5개 모두 70개의 박물관이 건립되어 운영 중임.<sup>1)</sup> 이중 41개 공립박물관은 경남도나 각 시군자치체의 지원에 의해 건립된 박물관으로서 지역문화 보존과 활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지역 공립박물관은 지역 문화유산의 역사적 조명과 보존관리를 위한 필요 문화기반시설로서의 다양한 학술 연구·보존·전시·교육 기능 수행과 함께, 지역의 주요 복합문화시설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현재 공립박물관을 비롯한 박물관은 새로운 사회환경과 이용객의 요구사항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음
- 중앙정부는 필수 문화기반시설인 박물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9년 6월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인 박물관 진흥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지역차원에서도 지역의 핵심 공공기관인 공립박물관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의 강구와 실천이 요구되고 있음

###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역 공립박물관의 구체적인 현황과 현재 직면한 여건변화 상황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공립박물관의 운영을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도출·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1)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본 연구의 진행 시기인 2020년 하반기 현재 가장 최신의 전국적인 통계 자료임.

## 2. 연구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 1) 연구범위

- 연구범위 및 대상
  - 경남도내 공립박물관
- 내용적 범위
  - 경남지역 공립박물관 기본 현황 분석
  - 중앙정부 박물관 관련 정책 동향 분석
  - 공립박물관 운영 관련 각종 현황 및 문제점 분석(설문조사 실시)
  - 공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도출·제시

### 2) 주요 연구내용

- 경남지역 소재 공립박물관 기본 현황
- 중앙정부 박물관 관련 정책 동향 분석
- 국내외 박물관 운영 사례 검토
- 공립박물관 운영 관련 각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공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도출·제시
  - 박물관의 운영 기본방향 및 전략
  - 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경남지역 공립박물관 현황 및 정책현황·유사사례 등 분석
-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지역 공립박물관 현황 분석
- 전문가 자문: 관련 분야 전문가로 부터의 연구 자문

## II. 경남지역 공립박물관 기본현황

### 1. 박물관의 정의 및 이론적 접근

- 박물관<sup>2)</sup>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를 수 있으나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의 정의에 따르면 “박물관은 인류와 인류 환경의 유형·무형의 물질적 증거를 연구·교육·향유할 목적으로, 이를 수집·보존·조사연구·상호교류(교육·전시)하며 대중에게 개방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비영리적이며 영구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sup>3)</sup>
- 현행 박물관·미술관진흥법상의 박물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함
- 이 두 정의를 보면 ICOM은 박물관을 기관으로, 우리나라 관련법은 박물관을 시설로 보고 있음. 기관은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나 조직을 말하나 시설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소나 건물, 즉 도구라는 의미가 강함
- 현행법상 박물관을 시설로 보는 관점은 박물관의 보다 넓은 사회적 역할과 그 기능, 목적 등을 볼 때 박물관의 중요성과 의미를 좁게 해석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함<sup>4)</sup>. 즉, 단순히 소장품을 수집 연구하고 전시하는 시설이 아니라 공공성을 토대로 사회교육과 발전을 이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목적 기관으로 발전해온 박물관의 개념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임

2)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의 박물관 정의를 보면 박물관(Museum)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미술관(Art Museum)을 포함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분리하여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박물관·미술관진흥법에서도 박물관과 미술관을 분리하여 정의함. 이에 본고에서도 박물관과 미술관을 분리하여 박물관만을 연구대상으로 함.

3)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의 박물관 정의는 다음과 같음; “A museum is a non-profit, permanent institution in the service of society and its development, open to the public, which acquires, conserves, researches, communicates and exhibits the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and its environment for the purposes of education, study and enjoyment.”; 이보아(2007), 박물관학 개론, 김영사, 21쪽.

4) 오정심(2013), pp.644-654의 p.647-650 참고.

- 박물관은 기본적으로 비영리목적으로 설립되어 공공과 사회의 발전과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소장품과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기본기능을 가짐
-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박물관, 공립 박물관, 사립 박물관, 대학 박물관으로 구분됨<sup>5)</sup>
- 현행법상 박물관은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박물관 등록을 하여야 함. 박물관은 1종 또는 2종 박물관으로 구분되며, 1종 박물관은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구분됨. 참고로 현행 박물관·미술관진흥법상 1종 박물관 등록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음

(표 2-1) 제1종 박물관 등록 요건

유형	박물관 자료	학예사	시설
종합박물관	각 분야별 100점 이상	각 분야별 1명 이상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收藏庫)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전문박물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자료) 박물관·미술관진흥법.

## 2. 경남지역 공립박물관 기본현황

- 현재 경남지역에 소재한 전체 박물관 수는 70개임. 70개 박물관 중 국·공립박물관이 44개로 많은 수를 차지하며, 사립박물관은 21개, 대학박물관은 5개임

5) 문화체육관광부(2019); 최병식(2010), p.187.



(표 2-2) 경남 시군별 박물관 기본현황

비고	전체수	국공립	사립	대학
총계	70	44	21	5
창원시	9	7		2
진주시	8	3	3	2
통영시	2	1	1	
사천시	1		1	
김해시	11	9	1	1
밀양시	5	1	4	
거제시	6	1	5	
양산시	2	1	1	
의령군	2	1	1	
함안군	1	1		
창녕군	3	3		
고성군	6	5	1	
남해군	1	1		
하동군	2	2		
산청군	6	5	1	
함양군	1	1		
거창군	1	1		
합천군	3	1	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수정·인용.

- 현재 경남지역 국·공립박물관은 44개소이며, 이중 국립박물관인 국립김해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해군사관학교박물관을 제외한 지역의 공립박물관은 41개소 임

(표 2-3) 경남지역 시군별 공립박물관 수 현황

구 분	개소	구 분	개소
창원시	6	함안군	1
진주시	2	창녕군	3
통영시	1	고성군	5
사천시		남해군	1
김해시	8	하동군	2
밀양시	1	산청군	5
거제시	1	함양군	1
양산시	1	거창군	1
의령군	1	합천군	1
총계		4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수정·인용.

- 현재 지역 공립박물관 중 1종 박물관으로 등록된 공립박물관은 24개임
- 한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의 2에 따라 2020년 기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을 받은 도내 공립박물관은 17개관으로 다음의 표2-4와 같음

(표 2-4) 경남지역 인증 평가 공립박물관 현황(2020년 기준)

박물관명	지역	등록년도
거제어촌민속전시관	거제	2008
고성공룡박물관	고성	2005
고성박물관	고성	2011
고성탈박물관	고성	2014
남해유배문학관	남해	2011
대성동고분박물관	김해	2004
밀양시립박물관	밀양	1993
산청한의학박물관	산청	2007
양산시립박물관	양산	2012
의병박물관	의령	1993
창원시립마산박물관	창원	2008
창원역사민속관	창원	2012
통영시립박물관	통영	2013
함안박물관	함안	2005
함양박물관	함양	2014
합천박물관	합천	2005
경상남도산림박물관	진주	200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관련 보도자료 참고.

- 문체부의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을 통해 경남지역 전체 박물관의 기본현황을 보면, 학예사 등 박물관 직원수는 172명, 박물관 소장자료는 715,523점, 그리고 박물관 전체 관람객수는 연6,587,547명임(표2-5 참고)

(표 2-5) 경남지역 박물관 기본현황(전체)

구분	박물관수	직원 수	학예직원 수	소장자료	연관람인원
합계	70	543	172	715,523	6,587,54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수정 인용.

- 경남도내 박물관 1관당 직원수는 평균 7.76명, 학예직원수는 2.46명, 소장자료는 10,222점, 연관람인원은 94,108명임(표2-6 참고)
- 이러한 경남도내 박물관 평균지표를 보면 박물관 각종지표가 전국 평균 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특히, 박물관 운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학예직원수를 보면 1개관 평균이 경남은 2.46명으로 수도권의 5.04명 그리고 지방의 2.61명 보다 적어 학예인력 현황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학예인력 수의 부족문제는 결국 박물관의 각종 기능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박물관 운영상 많은 현실적 문제를 야기함

(표 2-6) 경남 및 전국 박물관 평균지표 현황 비교

(개, 명, 점, 명)

지역	박물관 수	1개관 당 평균			
		직원 수	학예직원 수	소장자료	연관람인원
경 남	70	7.76	2.46	10,222	94,108
수도권	292	13.12	5.04	17,404	105,857
지 방	589	9.20	2.61	12,401	102,904
전 국	881	10.50	3.42	14,059	103,88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수정 인용.

- 경남도내 박물관 중 공립박물관만을 분리하여 세부 현황을 보면 표2-7과 같음. 41개 공립박물관의 세부 평균지표를 보면 학예인력 평균은 1.4명, 일반 인력은 4.2명, 소장 자료는 1,614.8점, 연 관람인원은 95,747.4명 임

(표 2-7) 경남 공립 박물관 평균지표 현황

(개, 명, 점, 명)

구분	박물관 수	직원수		소장자료	연관람인원
		학예인력	일반인력(명)		
합계	41	59	173	66,207	3,925,644
평균	-	1.4	4.2	1,614.8	95,747.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자료를 가공하여 인용.

- 공립박물관중 어느 정도 규모 있고 상대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1종 등록박물관만 분리하여 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24개 1종 공립박물관의 세부 평균지표를 보면, 학예인력 2.2명, 일반인력 6.2명, 소장자료 2,558.4점, 연관람인원 104,159.6명임

(표 2-8) 경남 공립 박물관(1종) 평균지표 현황

(개, 명, 점, 명)

구분	박물관 수	직원수		소장자료	연관람인원
		학예인력	일반인력		
합계	24	53	148	61,401	2,499,830
평균	-	2.2	6.2	2,558.4	104,159.6

- 참고로 경남지역 공립박물관과 1종 공립박물관을 상호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2-9) 경남 공립박물관과 1종 공립박물관 현황 지표 비교

(개, 명, 점, 명)

비교	박물관 수	1개관 당 평균			
		직원 수	학예직원 수	소장자료	연관람인원
공립박물관	41	5.6	1.4	1,614.8	95,747.4
1종 공립박물관	24	8.4	2.2	2,558.4	104,159.6

- 이를 보면 1종 공립박물관의 지표가 전체 공립박물관 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알 수 있으며, 공립박물관간 운영 상태 수준의 많은 차이를 알 수 있음
- 지역 1종 공립박물관 현황을 전국 박물관 평균 지표와 비교해 보면 연관람 인원에서는 조금 양호하나 인력이나 소장자료 등에서는 많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경남도내 공립박물관의 경우 박물관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수적인 측면의 지속적인 확충노력도 분명 필요하지만 박물관 학예인력이나 소장자료 확충, 전시내용 및 기법 개선, 박물관 홍보 및 마케팅 활동 강화 등 박물관 운영 관련 각종 영역의 개선이 급선무임
- 이를 통해 박물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관람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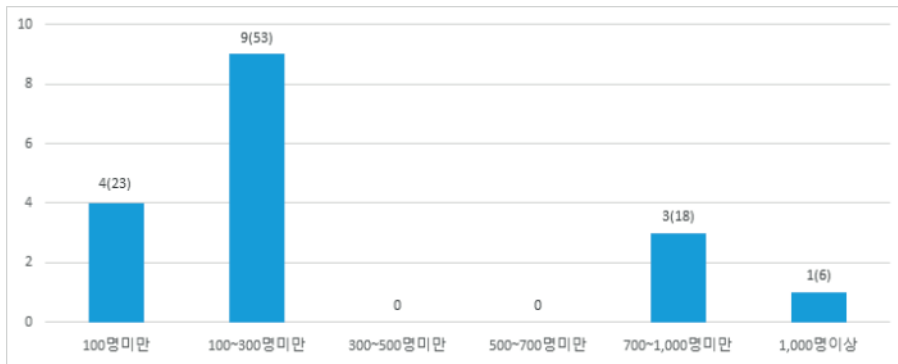
### 3. 경남지역 공립박물관 운영실태 현황과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지역 공립박물관의 구체적인 운영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17개 인증 공립박물관 전체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현황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 기간은 2020년 09월부터 약 1개월가량 소요됨

## 1) 지역 공립박물관 운영실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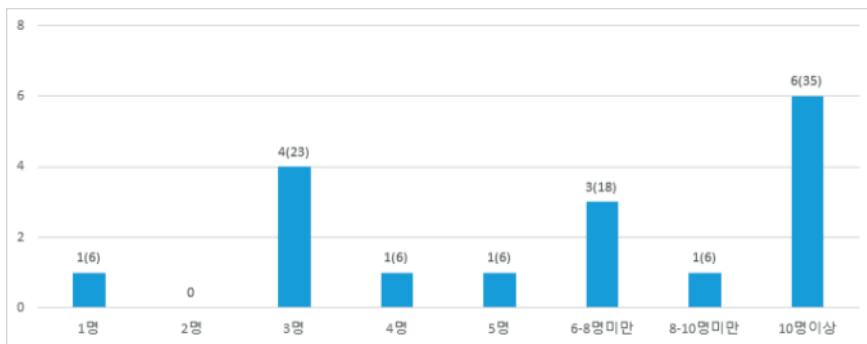
### □ 박물관 관람객 및 운영인력 현황

- 먼저, 설문조사 대상 17개 인증 공립박물관의 하루 평균 관람객 현황을 보면 100~300명 미만이 9개소로 53%를 차지하며, 100명 미만이 4개소로 23%를 차지함. 하루 관람객 300명 미만이 전체 76%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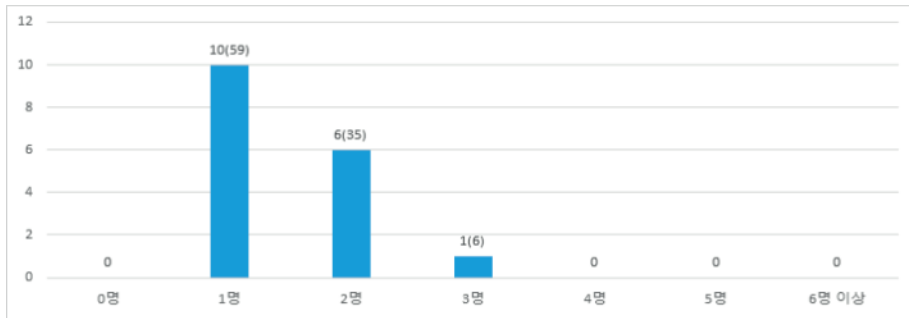
〈그림 2-1〉 하루 평균 관람객 수 현황(개소, %)

- 박물관의 직원 수를 보면 먼저, 정규직 수는 10명이상이 6개소로 35%를 차지하며, 3명인 경우가 4개소(23%), 6~8명이 3개소(18%)로 그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함. 정규직 수가 1명인 경우도 1개소(6%) 있음. 이를 보면 지역 공립박물관의 직원수의 편차가 큼을 알 수 있음



〈그림 2-2〉 박물관 정규직 수 현황(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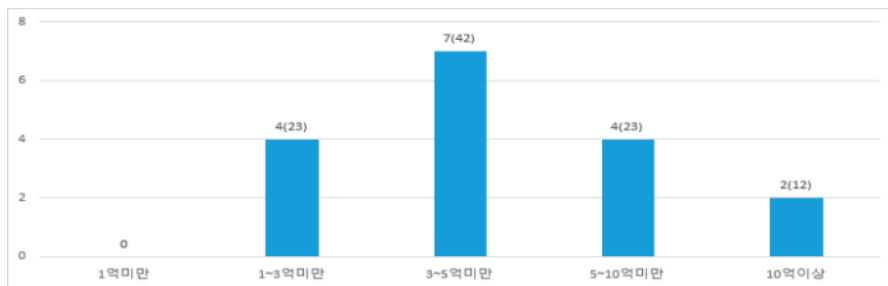
- 박물관 직원 중 학예사 수를 보면, 1명인 경우가 10개소(59%)로 가장 많으며, 2명인 경우가 6개소(35%), 3명인 경우가 1개소(6%)이었음. 공립박물관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학예사가 필요한 관계로 지역 인증 공립박물관의 경우 모두 그 충족 요건을 갖추고 있음



〈그림 2-3〉 박물관 학예사 수 현황(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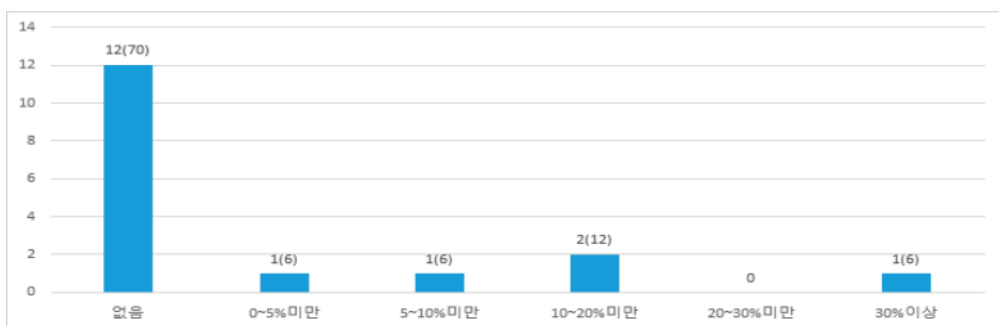
#### □ 운영예산 현황

- 박물관의 1년 운영예산 현황을 보면 3~5억 미만이 7개소(42%)로 가장 많으며, 1~3억, 5~10억 이 각각 4개소(23%)씩으로 그 다음 순을 차지함. 1년 운영예산이 10억 이상인 경우도 2개소로 전체의 12%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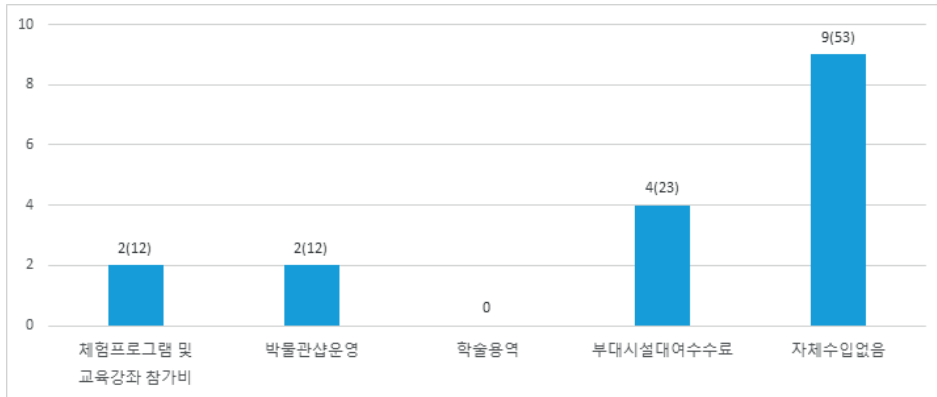
〈그림 2-4〉 박물관 1년 예산 현황(개소, %)

- 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전체 운영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현재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이 12개소로 전체의 70%를 차지함. 입장료를 받는 5개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중 4개소가 20%미만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그림 2-5〉 박물관 입장료가 1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현황(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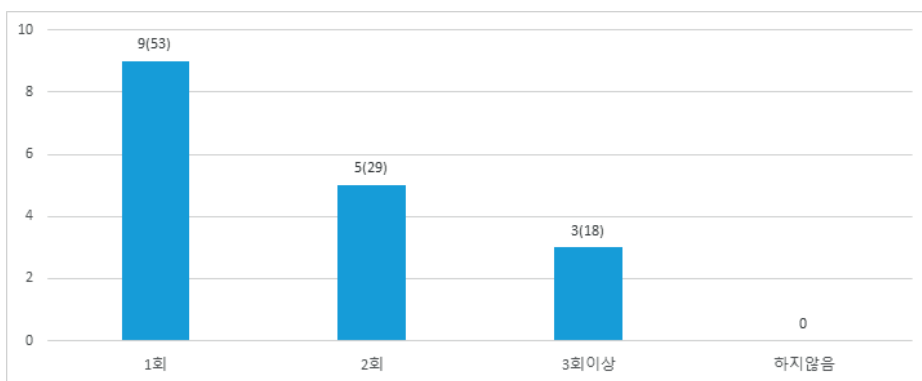
- 입장료를 제외한 박물관 자체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큰 수입원으로는 부대시설 대여 수수료라고 응답한 박물관이 4개소(23%)이며, 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강좌 참가비 2개소(12%), 박물관삽 운영 2개소(12%)로 나타남. 9개소(53%)는 자체수입이 없다고 응답함. 이를 보면 공립박물관의 경우 지자체 지원 외 특별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방안 강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그림 2-6> 입장료 박물관 자체 수입 현황(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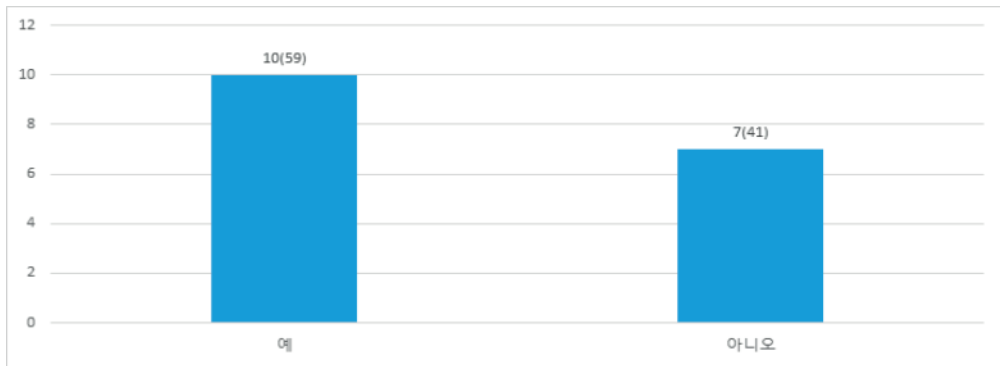
#### □ 전시·사회교육 부분 현황

- 박물관의 1년간 기획전시 횟수를 보면, 1회 개최하는 박물관이 9개소(53%)로 가장 많으며, 2회가 5개소(29%), 3회 이상이 3개소(18%)로 나타남. 17개 조사 기관 모두 1회 이상의 기획전시를 개최하여 양호한 수준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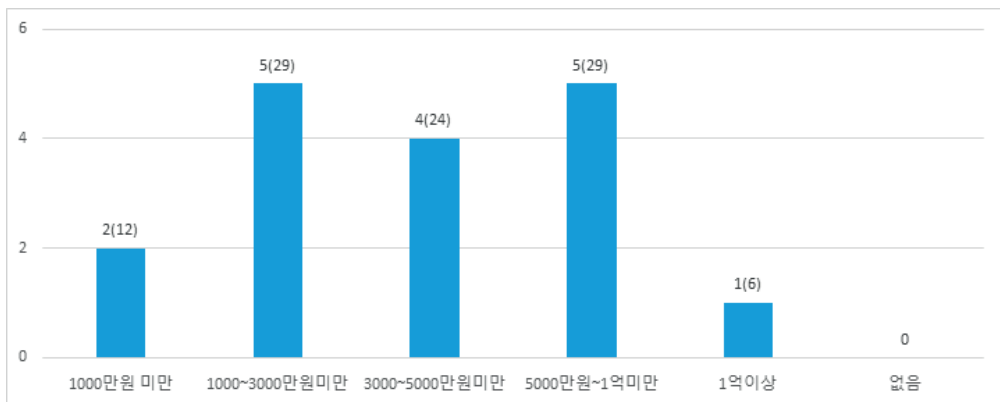
<그림 2-7> 박물관 1년간 기획전시 횟수 현황(개소, %)

- 박물관의 기획전시를 위한 타 박물관과의 연계전시 또는 순회전시 유치 현황을 보면, 10개소(59%)가 연계전시 또는 순회전시를 유치하고 있으며, 7개소(41%)는 아닌 것으로 나타남



〈그림 2-8〉 타 박물관과의 연계전시 또는 순회전시 유치 현황(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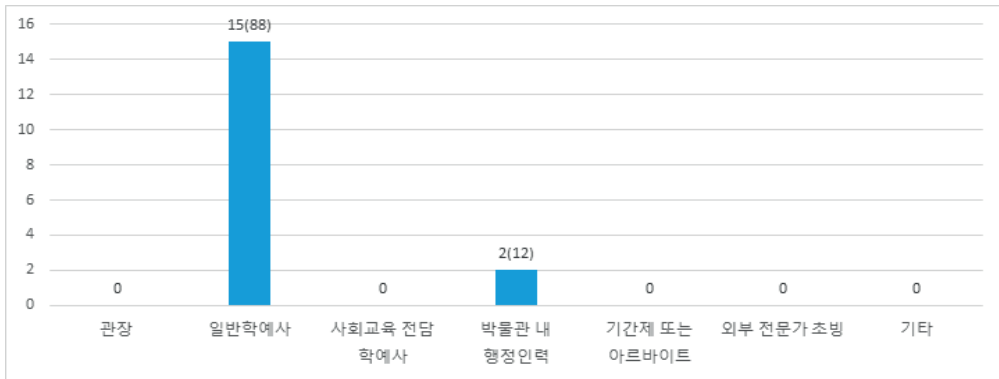
- 전시부분의 1년 예산을 보면, 1000만원~3000만원, 5000만원~1억 미만은 각각 5개소(29%)를 차지했으며, 1억 이상이 1개소(6%), 1000만원 미만도 2개소(12%)가 있음. 이를 보면 전시예산의 경우 박물관 상황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임



〈그림 2-9〉 박물관 1년 전시예산 현황(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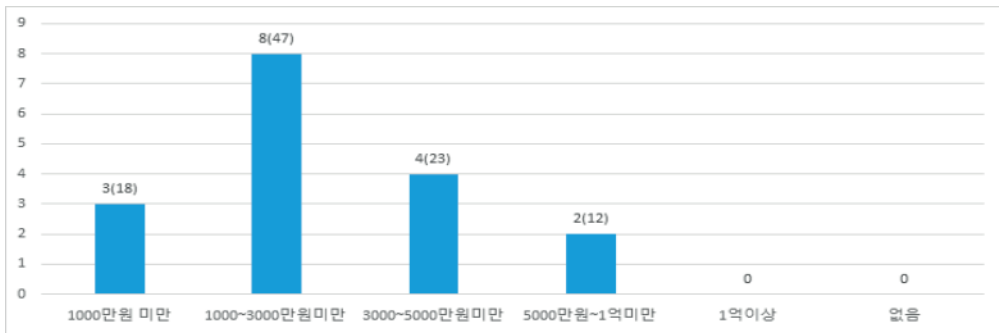
- 사회교육프로그램은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일반학예사가 15개소(8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박물관 행정인력이 2개소(12%)로 나타남. 사회교육전담학예사가 담당하는 곳은 없었음. 이를 보면 박물관 학예인력의 수적 부족에 따라 교육담당 전담 학예사를 두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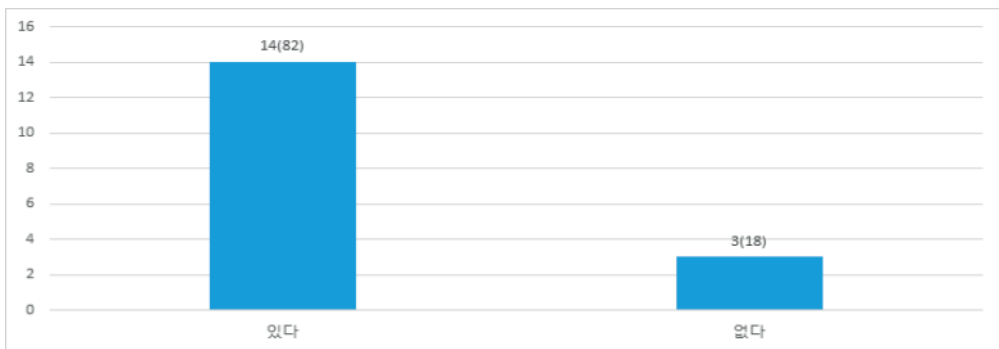
〈그림 2-10〉 박물관 사회교육 담당 현황(개소, %)

- 사회교육프로그램 1년 운영예산을 보면, 1000~3000만원 미만인 8개소(47%)를 차지하여 거의 과반을 차지함, 3000~5000만원 미만이 4개소(23%)로 다음 순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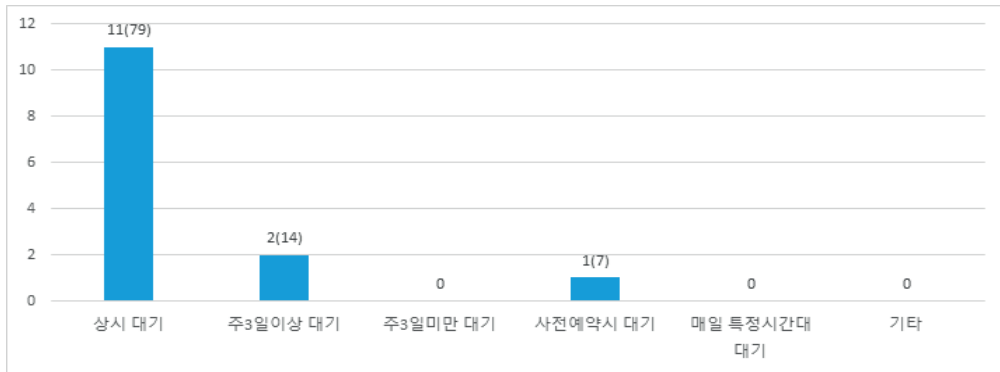
〈그림 2-11〉 박물관 사회교육부서 1년 예산 현황(개소, %)

- 방문객 대상 전문 전시유물해설사 유무를 보면, 14개소(82%)가 있다고 했으며, 3개소(18%)는 현재 없는 상태임



〈그림 2-12〉 박물관 방문객 대상 전문 전시·유물해설사 유무(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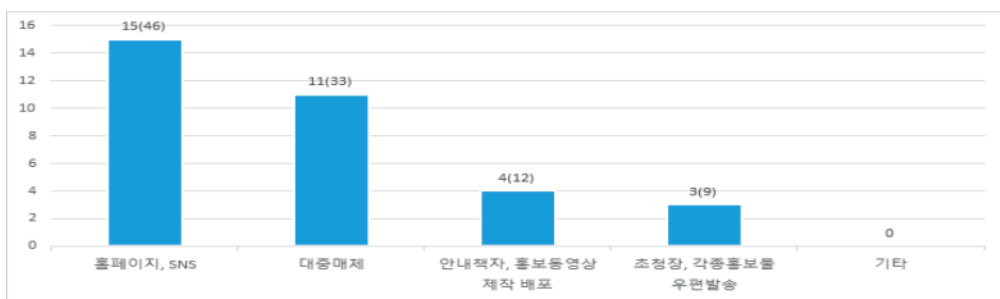
- 만일 있다면, 해설사의 상시 대기 유무를 보면, 상시 대기가 11개소로 가장 많은 79%를 차지함. 다음으로는 2개소(14%)가 주3일 이상 대기, 1개소(7%)는 사전예약시 대기로 나타남



〈그림 2-13〉 박물관 전시·유물해설사 근무 상태(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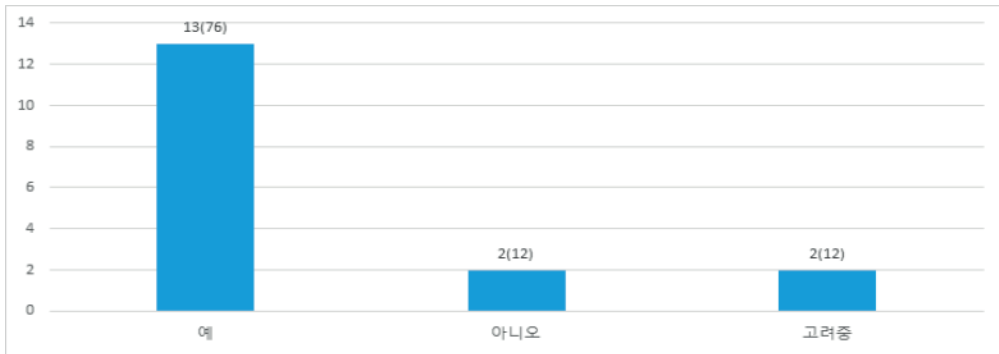
#### □ 마케팅 홍보 및 기타

- 박물관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주요 매체나 수단 현황을 보면, 전체 응답수(복수응답 가능)의 46%가 홈페이지, SNS를 말했으며, 대중매체 33%, 안내책자, 홍보동영상 제작배포 12%순으로 나옴. 이를 보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이 가장 대표적인 홍보 수단임을 알 수 있음



〈그림 2-14〉 박물관 홍보수단·매체(개소, %)

- 박물관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문화예술공연 개최나 장소대여 등 지역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13개소(76%)가 예라고 응답하였으며, 아니오와 향후 고려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2개소(12%)로 나옴. 이를 보면 지역 인증 공립박물관이 대부분 지역 문화 복합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고 관련 업무를 수행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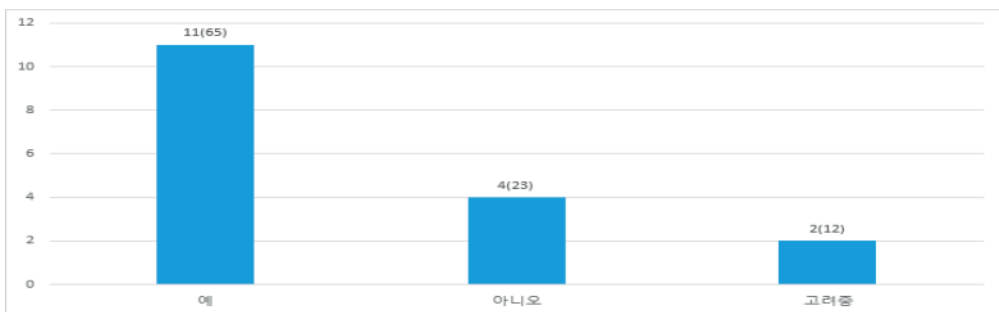
〈그림 2-15〉 지역문화기관으로서의 박물관 복합기능 수행여부(개소, %)

- 만일 아니라면 가장 큰 이유로는, 공간 및 시설여건 불충분(50%)과 기타(50%)로 각각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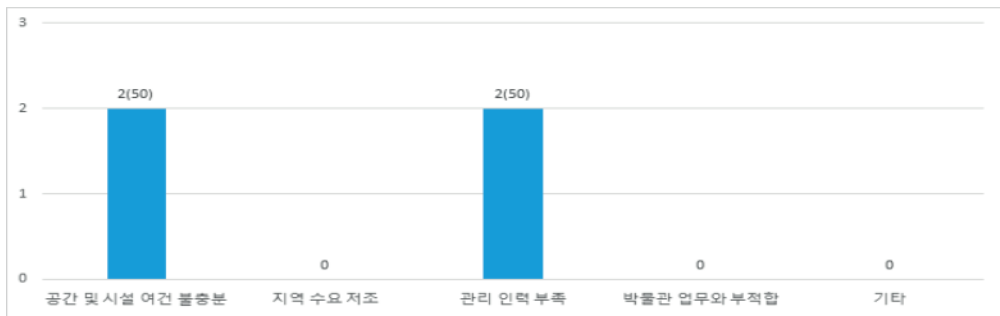
〈그림 2-16〉 지역문화기관으로서의 박물관 복합기능 미 수행시 이유(개소, %)

- 지역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박물관 공간대여나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11개소(65%)는 예라고 응답했으며, 아니오는 4개소(23%), 고려중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개소(12%)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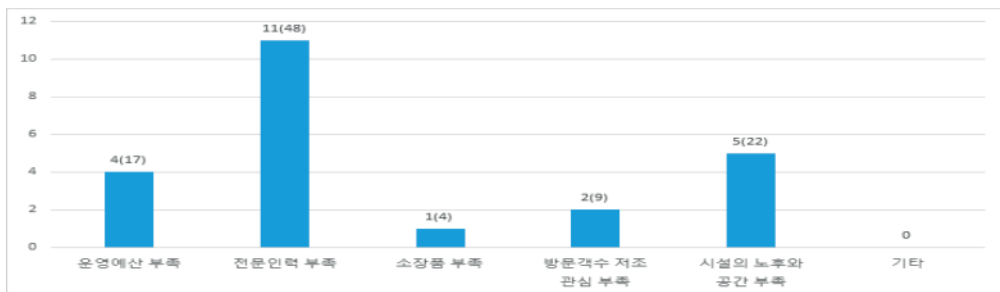
〈그림 2-17〉 지역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 여부(개소, %)

- 만일 아니라면 가장 큰 이유는, 공간 및 시설여건 불충분과 관리인력 부족을 각각 2개소(50%)씩 응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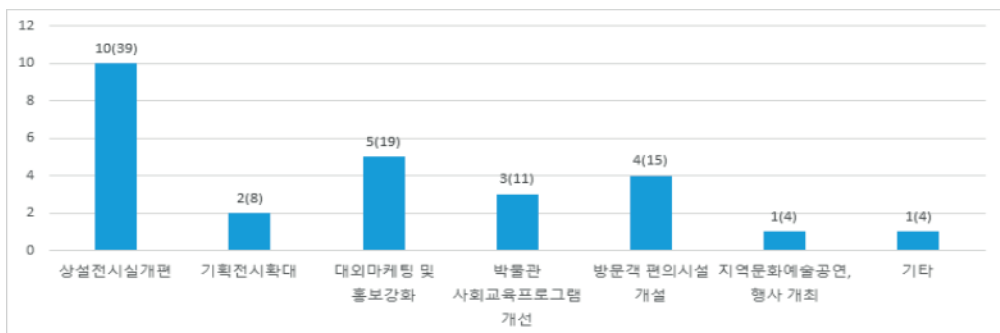
〈그림 2-18〉 지역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 미수행 이유(개소, %)

- 박물관 운영에서 가장 큰 애로점을 묻은 결과(복수응답 가능), 전문인력 부족이 응답수의 48%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시설의 노후와 공간부족 22%, 운영예산부족 17% 순으로 나왔음. 박물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이 대표적인 애로사항임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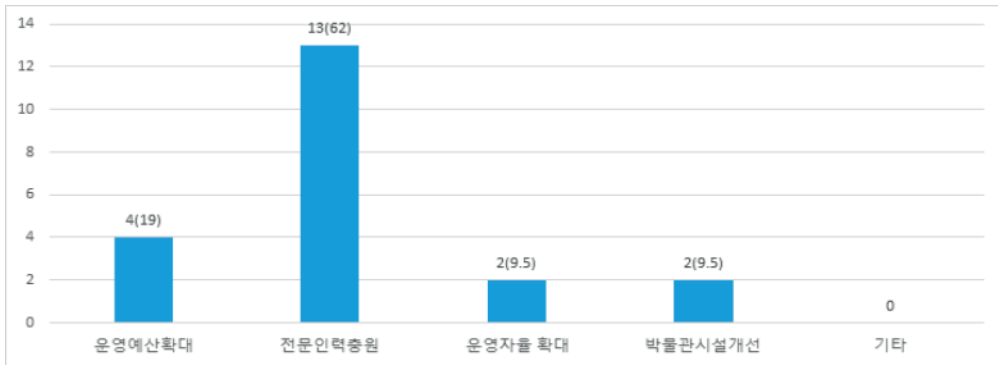
〈그림 2-19〉 박물관 운영의 가장 큰 애로점(개소, %)

- 보다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점에 대해(복수 응답 가능), 상설전시실 개편에 대한 응답이 전체의 3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대외마케팅 및 홍보강화가 19%, 방문객 편의시설 개선이 15% 순으로 나옴



〈그림 2-20〉 박물관 방문객 유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개소, %)

-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가장 원하는 사항(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전문인력 충원이 전체 응답수의 62%, 운영예산확대 19%, 운영자율성 확대 및 박물관 시설개선이 각각 9.5%순으로 나타남. 이를 보면 전문인력 충원 문제가 박물관 운영에서 가장 필요해 지자체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1〉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로부터 가장 원하는 사항(개소, %)

## 2) 운영 현황 시사점

- 경남지역 공립박물관 중 17개 인증 공립박물관의 운영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지역 공립박물관 운영 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구할 수 있음
- 우선, 지역 공립박물관의 경우 학예사를 비롯한 전문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가 많음. 현재 인증 공립박물관의 경우에도 인증조건 충족을 위해 기본적인 학예인력은 갖추고 있으나 전문적인 업무 수행과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박물관 전문인력의 충원이 더 필요함을 말하고 있음을 볼 때 지역 공립박물관 대부분이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공립박물관의 재원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의 예산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적인 재원조달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마케팅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편으로 나타남. 공립박물관의 성격상, 재원조달은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당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전적으로 지자체의 예산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자체적인 재원 확보 노력 역시 필요함
- 현재 지역 공립박물관의 경우 지역의 문화복합기관으로의 역할수행에

관심을 두고 진행 중인 경우가 많아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함. 이러한 기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운영부분을 보면, 기획전시 등을 위해 다른 박물관과의 연계전시나 순회전시 유치 등에서 많은 박물관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직접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함. 다만, 아직 상당수 박물관의 경우(인증박물관의 약 41%), 타 박물관과의 구체적인 연계활동이 부족함을 보이고 있는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함. 지역 공립박물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역량 강화와 함께 전시나 다른 박물관 활동에 있어서 지역 또는 타 지역의 다른 박물관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해야 함
- 지역의 대표적인 공립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17개 인증 공립박물관의 경우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황임. 반면, 현재 지역에 있는 공립박물관 중 상당수는 비 인증 상태이며, 이들 박물관의 운영현황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지역의 많은 공립박물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의 강구와 실천이 요구됨

### Ⅲ. 관련 정책 현황 및 우수 박물관 사례 분석

#### 1. 중앙정부 정책 및 관련사업 현황

##### 1) 중앙정부 정책 현황

□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sup>6)</sup>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6월에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을 수립·발표함



〈그림 3-1〉 문체부(2019)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

6)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년 6월 24일 보도자료 인용.

- 이 계획은 박물관·미술관 이용률을 '18년 16.5%에서 '23년 30%로, 또한, 1개관 당 인구수는 '19년 4.5만 명에서 '23년 3.9만 명으로 개선함을 목표하고 있음
- 이러한 목표 달성과 지역 박물관 환경·운영상황 개선을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으로 국립박물관을 포함한 지역 박물관의 운영 활성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표 3-1) 박물관·미술관 진흥 추진전략 및 과제 별 세부사업

추진전략 및 과제	세부사업
<b>1. 공공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위상 강화</b>	
1-1. 박물관·미술관 정책기반 체계화	(가칭)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추진
	지역문화거점으로서의 박물관·미술관을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1-2. 박물관·미술관 운영관리 내실화	박물관·미술관 등록유형 정비
	박물관·미술관 운영관리 실태조사 강화
1-3. 박물관·미술관 평가제도 정비	박물관·미술관 건립타당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 내실화
	박물관·미술관 평가 관련 전담기관 운영
<b>2. 모두가 누리는 박물관·미술관</b>	
2-1. 전국적인 박물관·미술관 문화향유 기반 구축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확충계획 수립
	문화향유 소외지역의 박물관·미술관 접근성 강화
2-2. 누구에게나 열린 박물관·미술관 조성 지원	박물관·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촉진
	박물관·미술관 장애인이용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제시
2-3. 박물관·미술관 고객관리 선진화	모두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확대
	국립박물관·미술관 고객관리 시스템 고도화
	공·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대상 고객관리 지원
<b>3. 전문적 기능 및 역량 강화</b>	
3-1. 사립과 대학 박물관·미술관 특성화 지원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특성화 지원 확대
	대학박물관·미술관의 연구·인력교육형 프로그램 지원
3-2.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확충 및 역량 제고	학예인력·예비학예인력 현황 기초조사 실시
	학예사 자격증 제도 개선을 통한 실효성 제고
	박물관·미술관 종사인력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
3-3. 소장품 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개선 및 이용자 중심서비스 강화
	공·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 관리시스템 구축 확대

자료) 문체부(2019). 2019년 6월 24일 관련 보도자료에서 인용.



(표 3-1) 박물관·미술관 진흥 추진전략 및 과제 별 세부사업(계속)

추진전략 및 과제	세부사업
3-4. 연구·출판·아카이브 기능 강화	박물관·미술관 공동연구 강화 박물관·미술관 출판·유통 지원체계 마련 박물관·미술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공공이용 활성화
4.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마련	
4-1. 첨단기술 기반 미래형 박물관·미술관 구축	국립 기관의 선도적인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미래형 박물관·미술관을 위한 기초 연구 활성화 박물관·미술관 법인화 전환 지원
4-2. 박물관·미술관 세제 개선 및 후원 활성화	기타 세제 관련 개선사항 박물관·미술관 기부 여건 조성 지원 민간의 사회공헌활동과의 연계·협력 강화
4-3. 박물관·미술관 안전 기능 강화	안전한 박물관·미술관 관람환경 조성 광역 공동 수장고 건립 및 보존처리서비스 지원
5. 협력을 통한 시너지 제고	
5-1. 국내 박물관·미술관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운영 활성화 박물관·미술관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5-2. 박물관·미술관 국제협력 확대	주요 계기 활용 박물관·미술관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해외 박물관·미술관 한국실 지원사업 체계화
5-3. 박물관·미술관 남북교류 활성화	남북 박물관·미술관 공동전시 추진 남북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상호대여 등 북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보존처리 기술 지원

자료) 문체부(2019). 2019년 6월 24일 관련 보도자료에서 인용.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sup>7)</sup>

-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수립된 본 계획은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라는 비전에 따라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 발굴·활용,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이라는 4개 전략과 15개 핵심과제를 도출함
- 2024년에는 지역의 문화재정을 전체의 1.6%(3조 7000억원)에서 1.8%(5조 9000억원)로, 대도시와 읍면지역 문화예술 관람률 격차를 12.7%에서 10%로 개선함을 목표로 함
- 본 계획 중 박물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전체 국·공립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20년 넘은 노후 기관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컨설팅과 재단장(리모델링)을 지원,

7)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년 2월 10일 관련 보도자료 인용.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의 복합화를 유도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국립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지표에 포함

## 2) 중앙정부 공립박물관 관련 사업 사례

### □ 전국 공사립·대학박물관 소장품 DB화 사업<sup>8)</sup>

- 사업개요: 공립·사립·대학박물관의 소장품 관리체계 개선 및 활용도 제고와 대국민 공개 서비스(e뮤지엄) 확대
- 사업 세부내용(2020년 기준)
  - 지원대상: 등록 공립·사립·대학박물관(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활용관)
  - 예산규모: 693백만원 (민간경상보조, 일반회계)
  - 지원내용: 지원대상 박물관에 DB구축인력 및 촬영인력 지원
  - 지원 규모: 총 38명(등록인원 30명, 촬영인력 8명)
  - 등록인력은 박물관별 2명 원칙. 구축 현황에 따라 추가 지원(최대 4명)
  - 촬영인력은 권역별 촬영 일정 수립하여 순환 근무(2인 1조/6개월)
  - 담당 업무: 박물관 소장품 DB 구축 및 소장품 촬영 업무 수행

(표 3-2) 인력별 업무 내용

등록인력	촬영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운영관리</li> <li>○ 소장품 조사 및 명세서 작성, 입력</li> <li>○ 소장품 출·격납, 관리, 대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 대상 박물관 자료의 촬영</li> <li>○ 공개서비스 목적 사진의 보정작업</li> <li>○ 박물관별 사진자료 관리</li> </ul>

### □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sup>9)</sup>

- 사업 추진배경
  - 박물관 정책이 시설 건립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박물관 난립 및 건립 후 사후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 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으로 등록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2017년부터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실시
- 주요내용
  - 평가대상: 등록 후 3년 경과된 공립박물관

8) 문제부(2020), 2020년도 전국 공사립·대학박물관 소장품 DB화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문 참고.

9) 문제부(2020), 보도자료(2020.08.03.) “전국 227개 공립박물관 평가 결과 우수 157개관 인증” 참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등록 한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시설 및 사업현황, 사업관리, 관람객, 운영인력 등을 지표화하여 분야별 평가

1. 설립 목적의 달성도
2.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3.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4.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인증기관은 2년 인증 후 계속 재평가 실시함

○ 2020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을 통해 227개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그 중 우수한 157개관을 인증함

(표 3-3) 2020년 시·도별 공립박물관 인증 결과

시·도	대상	결과		인증률	최우수 기관
		인증	미인증		
서울특별시	13	11	2	84.6%	서울역사박물관
부산광역시	6	6	0	100%	부산박물관
대구광역시	6	4	2	66.7%	대구섬유박물관
인천광역시	12	9	3	75%	녹청자박물관
광주광역시	3	3	0	100%	광주시립박물관
대전광역시	4	4	0	100%	대전시립박물관
울산광역시	7	6	1	85.7%	울산박물관
경 기 도	42	36	6	85.7%	전국선사박물관
강 원 도	26	10	16	38.5%	원주역사박물관
충 청 북 도	8	4	4	50%	충주박물관
충 청 남 도	14	8	6	57.1%	천안박물관
전 라 북 도	17	14	3	82.4%	정읍시립박물관
전 라 남 도	19	7	12	36.8%	한국천연염색박물관
경 상 북 도	23	11	12	47.8%	의성조문국박물관
경 상 남 도	20	17	3	85%	양산시립박물관
제 주 도	7	7	0	100%	민속자연사박물관

자료) 문체부(2020), 보도자료(2020.08.03.) “전국 227개 공립박물관 평가 결과 우수 157개관 인증” 참고.

○ 참고로 2020년 인증 평가지표 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음

(표 3-4) 공립박물관 인증 평가지표 체계

평가인증 범주	평가인증 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1. 설립목적의 달성도 (15)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	운영계획의 적정성	5
	운영형태	운영관리 적정성	5
	(정성) 설립목적의 달성도		5
2.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25)	박물관장 전문성	박물관장의 전문성	2
	적정한 조직 및 인력관리	조직 구성의 적정성	5
	효과적인 재정 관리	재원 지속성 및 조성노력	5
	안전한 시설 관리 (전시, 수장, 소방 등)	전시실, 수장고 등의 소방·안전 관리의 적정성	8
	(정성)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5
3.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20)	소장품 수집	소장품 수집 전문성 및 적극성	7
	소장품 관리	소장품 관리·보존의 적정성	4
		소장품 정보관리의 적정성	4
	(정성)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5
4.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30점)	전시	전시 사업 성과	10
	교육	교육·체험 사업의 성과 및 전문성	10
	(정성)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10
5. 공적 책임 (10)	관람객 관리	관람객 확보 및 노력	2
	소통과 사회적 기여 노력	공공 문화기관으로서의 소통 노력	2
	지역사회 협력 증진	지역사회 활동 적극도	2
	자원봉사자 운영	자원봉사자 활용	2
	(정성) 공적 책임		2
합계			100

주) 문체부(2020), 보도자료(2020.08.03.) “전국 227개 공립박물관 평가 결과 우수 157개관 인증” 참고.

#### □ 공립박물관(미술관)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 사업<sup>10)</sup>

- 사업 목적: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기술을 활용하여 박물관·미술관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람객에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박물관·미술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박물관·미술관 관람 만족도 제고

10) 문체부(2020), 2020년도 공립박물관(미술관)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문 참고

○ 사업 개요 (2020년 기준)

- 사업기간: 2020년 2월(교부결정일) ~ 2020년 12월
- 사업예산: 10,000백만원(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등)
- 지원조건: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보조율 50%)
- 지원금액: 500백만원 이내 ※지방비 포함 사업비 10억원 내외

○ 사업 내용

- 실감콘텐츠 제작: 박물관·미술관 소장 자원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는 비용 지원
- 박물관·미술관(예술가) 협력, 사례비교, 체험프로그램 콘텐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 제작 전시
- 체험존 또는 탐사프로그램: 실감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구역 조성 또는 탐사프로그램 개발 비용 지원
- 체험존은 규격화하여 브랜딩 및 지속가능성 제고, 탐사·체험프로그램은 공유플랫폼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성 및 확장성 제고

○ 사업 추진 방식

- 추진체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점검 및 지도 등
- (보조사업자) 사업신청, 사업시행,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등

## 2. 국내·외 우수 공립박물관 운영 사례

### 1) 군산근대역사박물관<sup>11)</sup>

- 2011년 근대문화 중심도시 군산의 특화 박물관으로 개관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2015년에 전국 공립5대박물관으로 선정되었고, 개관 6년 만에 관람객 100만명을 달성함. 2019년도에는 95만명이 박물관을 방문함
-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1년에 20여회의 전시와 300여회의 문화공연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문화복합공간 역할을 하고 있음. 박물관 운영에는 시민자원봉사자 100여명이 참여하여 근대문화와 역사

11) 매거진군산(2019)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전반기 관람객 30% 증가 -연 100만명 관람으로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다-, 2019년 8월호;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자료 참고

에 대한 해설과 함께 인형극, 민속놀이 등을 함께 진행함. 이와 함께 각 전시장을 연계한 스탬프 투어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

- 박물관은 시민 기증유물을 포함한 2만 7천여 점의 방대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획 전시를 개최함. 2019년에는 ‘근대기 군산의 경제인 전-근대산업의 거인들’, ‘군산의 동학농민혁명 전’, ‘마음을 그려내다, 석지 채용신 초상화 전’ 등을 개최함
- 또한, 시민열린갤러리 및 장미갤러리 등은 시민들이 만들고 참여하는 전시공간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 군산시민 또는 군산지역 소재 단체 등이 작품을 전시함. 이를 통해 지역 문화복합공간으로서의 박물관의 기능을 살리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재조명할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민요 및 판소리, 사물놀이, 버스킹, 인형극, 연극 공연 등 연 300여회 이상 개최되는 문화공연을 통해 많은 관람객을 유도하고 있음
- 박물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지 방문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 입장권 소지자에게 판매금액(현금10%, 카드7%)을 할인 받을 수 있는 BUY 가맹점 제도도 운영 중임. 이 제도 운영을 통해 군산의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가속화시키고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는 별도의 할인 혜택을 부여해 박물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거둠
- 박물관은 관람객 편의와 주변 전시관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비롯한 인근 전시관(근대미술관, 근대건축관, 위봉함)을 같이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 통합권과 금강권 코스(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채만식 문학관, 철새 조망대)까지 관람할 수 있는 금강권 통합권 제도를 운영하여 많은 관람객 유치와 박물관 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자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2020.02.03. 보도자료 사진.

〈그림 3-1〉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행사 전경



## 2) 상주박물관<sup>12)</sup>

- 경북 상주박물관은 2019년 1월부터 10월 23일까지 관람객 수가 9만여 명으로 2018년 같은 기간 3만8천여 명 보다 2배가량의 관람객 증가를 보임
- 박물관은 SNS 홍보 강화와 다양한 체험 활동 등을 개발하여 어린이와 학생들의 수학여행 유치 노력을 전개함. 어린이체험실을 운영하고 관람객이 영남선비들의 의상을 입고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운영함
- 또한, 상주박물관은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등의 전통문화박물관 협의체 기관들의 연합전시인 ‘상산선비들 낙강에 배 띄우다’라는 특별기획전을 개최해 전시 콘텐츠를 확대함



자료) 상주박물관 홈페이지; 매일신문 2019.10.23.일 관련기사에서 사진 인용.

### 〈그림 3-2〉 상주박물관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및 기획전시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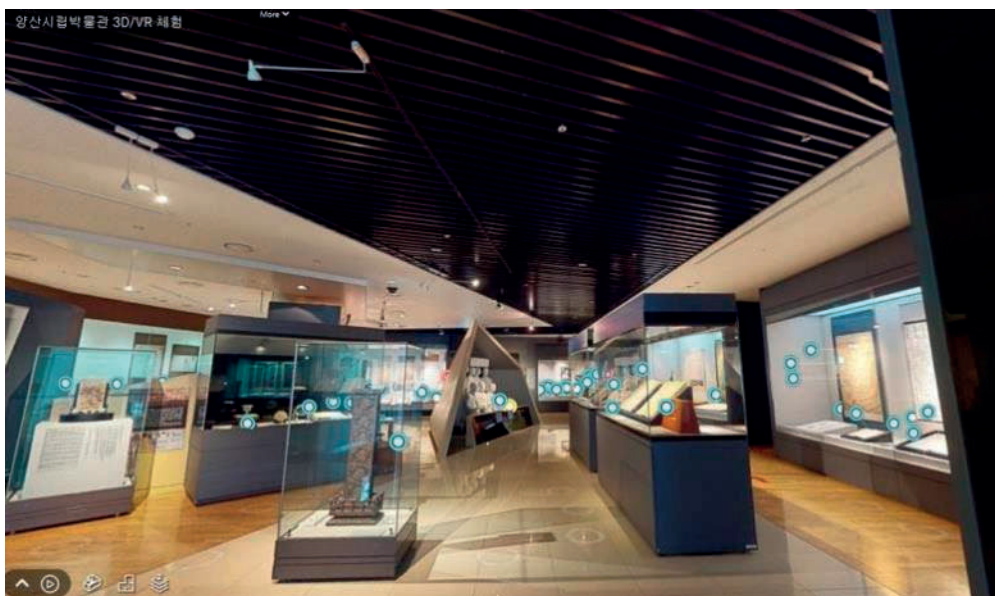
- 한편, 주변의 경천대, 상주국제승마장, 낙동강국립생물자원관 등과의 공동홍보 마케팅 전개도 큰 역할을 함
- 상주박물관은 정적인 박물관 운영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박물관

12) 상주박물관 홈페이지; 매일신문 2019.10.23.일 관련기사 참고

관 운영프로그램 개발, 기획전시 연계 개발 등을 통한 전시 콘텐츠 보완,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 등을 통해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음

### 3) 양산시립박물관<sup>13)</sup>

- 양산시립박물관은 2020년 기준 공립박물관 인증평가에서 경남도내 공립 박물관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
- 박물관은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공연이 취소된 숲속음악회를 온라인 공연으로 개최함. 또한 직접적인 방문관람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온라인 VR(가상현실)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온라인 VR 체험을 통해 역사실과 고분실, 기증실 등 상설전시실을 체험케 하는 등 다양한 박물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양산시립박물관은 매년 100,000명 이상이 방문하며, 관람객에게 좋은 박물관 경험을 제공하고 또한 많이 유치하기 위해 매년 2차례 특별전과 박물관 대학, 어린이 교양강좌교육 프로그램, 달빛 고분야행 등 다양한 참여형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자료) 연합뉴스, 2020년 8월 19일 관련기사에서 사진 인용.

〈그림 3-3〉 양산시립박물관 VR 체험프로그램

13) 양산시립박물관 홈페이지 및 연합뉴스, 2020년 8월 19일 관련기사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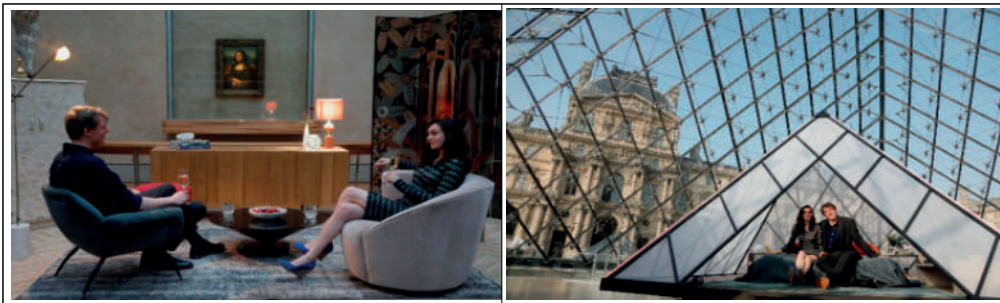
#### 4) 프랑스 루브르박물관<sup>14)</sup>

-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박물관(Louvre Museum)은 2018년 기준 관람객 1,020만 명이 방문한 세계 3대박물관 중 하나임. 이 통계는 전년도 대비(810만 명) 25%가 증가한 수치로 하루 평균 3만 명 넘게 루브르를 방문함
- 박물관 입장료 수입은 대략 1억7천340만 유로 정도로, 출판물, 레스토랑, 박물관 문화상품(Museum Goods) 등의 판매 수익까지 합한다면 수입이 2천 230억 원이 넘음
- 루브르박물관의 이러한 성공적인 운영은 소장품의 질적 수준과 맞물려 있으나 지속적인 마케팅 노력과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려는 지속적인 혁신에서 찾을 수 있음
- 루브르박물관의 다양한 마케팅 노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2018년 루브르 박물관을 배경으로 팝스타 비욘세의 뮤직비디오 제작과 관련 이벤트 운영이라 할 수 있음
- 비욘세와 제이지 커플의 ‘Apushit’의 뮤직비디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나폴레옹의 대관식 등 명화들을 배경으로 촬영되었고 유튜브에서 1억4천700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였음
- 이를 통해 루브르박물관은 이미지 쇄신과 함께 관람객 유치에 필요한 충분한 홍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또한, 이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17점의 명화를 돌아보는 관람 동선을 만들어 모나리자 그림에 집중되는 박물관 관람객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둠
- 즉, 루브르는 비욘세 ‘Apushit’의 뮤직비디오 속 등장하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Jay-Z and Beyonce at the Louvre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 약 90분간 진행되는 이 투어는 비욘세의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피오렌티노 로소(Rosso Fiorentino)의 ‘피에타 (Pieta)’와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의 ‘모나리자 (Mona Lisa)’, 다비드 (David)의 ‘나폴레옹 대관식(Couronnement de Napoleon)’ 등 주요 작품들을 관람하며 설명을 듣는 투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함
- 또한, 루브르는 관광회사와도 협업하여 4인 가족 기준 3만 유로(원화로 3,800만 원)의 프라이빗 상품 개발함. 이 상품은 고객들을 위해 호텔 입

14) 김연희(2019), 변화하는 뮤지엄 마케팅 (루브르 박물관! 자존심을 버리다), 박물관 뉴스, 한국박물관협회회에서 내용을 발췌인용함. 개별 인용처리는 생략함

구에서의 픽업 서비스와 전문 가이드와 함께 비온세 뮤직비디오의 배경인 된 주요 작품 앞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사진을 찍는 ‘프라이빗 90분 투어’, 프라이빗 보트에서 샴페인, 치즈, 캐비어 등 선상 애프터파티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상품을 구성함

- 루브르는 이밖에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를 영화한 작품에서 피라미드 노출을 통해 많은 홍보효과를 거두고 많은 관람객을 유인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꾸준히 전개 중임



자료) 중앙일보 2019.05.02. 관련 기사에서 사진 인용.

〈그림 3-4〉 에어비앤비와 루브르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 공개 30주년 기념 이벤트

- 루브르는 이와 함께 2017년 11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루브르 아부다비 박물관(Louvre Abu Dhabi)’를 개장하여 루브르라는 자체 브랜드를 수출하기도 함. 프랑스 정부는 ‘루브르’라는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5억2천500만 달러를 받음. 이를 위해 2007년 3월 6일 프랑스 정부와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정부(UAE)는 ‘루브르 아부다비 박물관 설립에 관한 협약(l’ accord relatif au musee universel d’ Abu Dhabi)’을 체결함



자료) 루브르아부다비박물관 홈페이지.

〈그림 3-5〉 루브르아부다비박물관 외관 및 내부 전경

- 이 협약에 의해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정부(UAE)는 앞으로 30년 6개월 간 ‘루브르 박물관’이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10년간 300여 점을 받아 전시하게 됨. 이 대가로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UAE)는 전시기획과 작품 대여료, 운영 노하우 전수 명목으로 9억 7천400만 유로(약1조 2584억 원)를 지급하기로 프랑스 측과 합의함
- 또한, 루브르는 방문객의 편의와 홍보효과 창출을 위해 다양한 운영측면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한 예로 관람객의 셀피(Selfie)와 인증 사진을 하나의 홍보 채널로 인정하여 그동안 작품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했던 플래시 사용 사진 촬영도 일부 허가하여 관람 편의를 제고함
- 이처럼 루브르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젊은 층을 비롯한 새로운 사회의요구와 수요에 맞춘 다양한 박물관 마케팅 정책을 통해 박물관의 영역과 수요를 확장하고 박물관계의 명품 브랜드로서 이미지 쇄신을 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5) 밀워키 퍼블릭 박물관(Milwaukee Public Museum)<sup>15)</sup>

-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시에 있는 밀워키 공립박물관은 1884년에 건립된 자연사박물관임
- 이 박물관은 현재 4백만점에 이르는 소장품과 함께 상설 및 기획전시실을 설치하여 매년 550,000명 이상의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음
- 상설전시실은 지구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The Third Planet’ 전시실을 포함하여 밀워키시의 역사 조명 ‘Streets of Old Milwaukee’와 유럽 마을 ‘European Village’, 그 밖의 세계 각 지역의 주요 문화적 전통을 보여주고 있음
- 박물관은 전시활동과 함께 함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중임. 상설 전시실의 전시 주제를 중심으로 매달 새로운 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온 가족이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박물관 교육담당자가 직접 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아웃리치 프로그램, 교육자가 비디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Virtual Classroom’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중임

15) 밀워키 퍼블릭 박물관(Milwaukee Public Museum) 홈페이지(<http://www.mpm.edu/>) 자료 인용.



자료) 밀워키 퍼블릭 박물관 홈페이지.

〈그림 3-6〉 밀워키 퍼블릭 박물관

- 박물관은 운영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 중임. 우선, 박물관 회원제도를 운영중임. 박물관 회원제도는 연 회비에 따라 몇가지로 구분되며, 그에 따라 박물관 입장료 무료 할인, 박물관 샵 이용 할인, 제휴 박물관 무료 입장 등 다양한 박물관 이용 혜택을 차별화하여 주고 있음
- 이와 함께 개인이나 기업 단체 차원의 기부금 유도과 갈라 파티 등과 같은 기금 모금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함. 또한, 박물관은 재원 확충과 관람객 편의를 위해 푸드코트과 박물관 샵을 운영중이기도 함

### 3. 관련 사례로 본 박물관의 변화 및 수요 환경

- 수장고 속의 유물, 재미없고 일방적인 주입식 전시, 무거운 관람 분위기 등 그간 박물관을 대표하는 이러한 고정 이미지 속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박물관은 이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음
- 20세기 후반 신박물관학(New Museology)의 대두 이래 박물관의 지속적인 사회적 역할 확장과 함께 박물관계의 “탈경계, 다양성, 융합과 소통, 그리고 박물관과 관람객의 수평적 관계”<sup>16)</sup>등의 강화는 기존의 근대적 박물관 개념의 수정과 확장을 가져옴
- 이제는 박물관이 가지는 수동적이고 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4차 혁명시대에 사회문화적으로 요구하는 새로운 박물관상으로의 전환과 대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임

16) 오정심(2013), pp.644-654의 p.651.

## 1) 새로운 기술혁명시대에 부합하는 박물관의 혁신 요구

- 박물관은 이제 ICT와 빅 데이터로 이해되는 시대이며, 관람객의 취향과 성향을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요한 관람객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음. 빅 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관람객이 원하고 보고 싶어 하는 전시 취향을 이해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시를 기획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고 있음
- 한편,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과정을 통해 박물관의 디지털박물관화에 대한 움직임은 한층 확장되고 있음. 비대면 전시체험을 위한 디지털박물관의 성장은 코로나 이후에도 그 가능성과 적용 영역이 더욱 확장되는 과정과 최종 결과로 연결될 것임
- 또한, 박물관 전시나 교육 콘텐츠에서도 기존의 유물 전시에서 벗어나 다양한 첨단 전시기법과 실감콘텐츠 적용 등 첨단 ICT 기술의 적용이 확대되면서 박물관의 지속적인 첨단화 및 기술화 측면의 혁신이 요구됨. 참고로 국립중앙박물관은 2020년 5월 실감형 콘텐츠 전시공간을 개관하여 고구려벽화무덤, 정조의 화성행차, 경천사탑 등 다양한 주제의 실감형 콘텐츠를 전시 중 임<sup>17)</sup>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실감 영상관 리플렛에서 그림 인용.

〈그림 3-6〉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실감 영상관

17)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참고.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실감 영상관 리플렛에서 그림 인용.

〈그림 3-6〉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실감 영상관(계속)

## 2) 타 문화시설과의 경쟁 가속화 및 마케팅 강화 요구

- 또한, 박물관은 비영리기관이나 원하는 목적과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함에 있어 타 문화시설 또는 타 박물관과 비경쟁관계에 있는 것은 아님. 박물관은 다양한 대상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이 관계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신과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필요함. 세계 최고의 루브르박물관이 그간의 명성과 성취 업적에도 불구하고 지속전개하는 점은 이를 잘 대변함
- 박물관은 찾아오는 관람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람객을 찾아나서는 다양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의 전개가 필요함.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박물관의 기본 인프라속에서 다양한 마케팅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발하는 노력 속에서 가능해짐. 또한 주변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 협력이 요구됨
- 박물관의 마케팅전략으로 근래 들어 다양한 SNS매체를 이용한 박물관 홍보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다양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개발하여 박물관과 전시, 소장품에 대한 각종 정보와 함께 주변 정보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한 예로, 코로나19로 인해 휴관시 프랑스 루브르박물관과 오르세미술관은 매일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코로나 19 영향으로 박물관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로와 함께 정보제공과 홍보활동을 지속하였음

- 박물관의 마케팅 노력은 박물관 운영프로그램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음.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은 지적인 학습 욕구 이외에도 다양한 즐길거리를 찾아 박물관을 방문함. 관람객이 원하는 바는 계속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되는 욕구와 새로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박물관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음. 박물관은 관람객의 새로운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교육, 문화예술 등 다양한 생활문화 분야의 박물관 운영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3) 박물관의 자체적인 혁신 필요

- 박물관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은 결국 박물관의 인적자원임. 박물관의 인력은 박물관의 기본기능 수행과 함께 박물관 마케팅과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 박물관 운영 전반에 필수 인프라로 이를 충분히 확보함이 급선무임
- 시설 측면의 지원 인프라의 구비 역시 박물관 활성화에 필요한 부분임. 전시영역에서의 첨단 ICT기술의 적용 등 전시 공간의 개선을 통한 관람객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끄는 전시 디자인의 적용과 다양한 주도적 체험활동이 가능한 어린이박물관의 구비 등 박물관 전시·교육시설 측면의 보완 역시 다양한 문화시설과의 경쟁에서 박물관이 살아남기 위해 요구되는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박물관에 대한 새로운 경향과 변화 요구에 대해 공립박물관은 다양한 지역 박물관을 선도하는 측면에서 먼저 대응하고 주도하는 능동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방안 강구가 필요함

### 4) 주민 참여·소통형 박물관 지향

- 박물관의 전시콘텐츠나 박물관내 어린이박물관 체험 콘텐츠의 개발과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그간 행해졌던 박물관과 기획자 측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기획과 제작과정에 이용자인 관람객(주민)들의 수요와 요구가 상호 논의되고 타협·반영되는 과정이 강조되고 있음<sup>18)</sup>
- 박물관의 일방적인 제시가 아니라 관람객, 즉 수요자가 원하는 전시콘텐츠와 교육콘텐츠의 개발·운영과 상호간의 수평적인 관계는 박물관에 대한

18) 김재홍(2018), 관람형에서 참여형 전시로 전환하는 박물관. 한국사연구(183), pp.37-67.

지역민의 주체적 참여에 따른 긍정적인 반응과 지역의 생활문화 제고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됨. 박물관은 지역공동체간의 소통을 이끌고 지역 공동체와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전시에 담아 소위, ‘Museum without walls’를 지향하고 박물관에 대한 지역민의 접근성을 한층 높여야 함<sup>19)</sup>

- 박물관은 관람객의 방문 편의를 고려한 운영과 관람객이 원하는 재미와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변화와 노력이 필요함<sup>20)</sup>
- 참고로 국립나주박물관은 이러한 변화 움직임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음.<sup>21)</sup> 국립나주박물관은 지역학계·지역민의 요구와 오랜 조사 성과를 토대로 영산강유역의 마한문화를 다루는 전문박물관으로 건립됐음. 제2상설전시실 발굴 등을 통해 박물관에 입수된 문화재들이 어떻게 관리·보관되고 있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개방형수장고와 고고학체험시설로 구성하여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만들었고, 또한 다양한 고고학 및 고분문화 체험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특히, 지역민이 전시해설사와 자원봉사자로 박물관의 전시와 다양한 박물관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주민 참여 박물관을 지향함. 이렇게 박물관이 지역민, 관람객과 소통하려 노력하여 2013~2020년 7년간 누적 관람객 1,284,370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음<sup>22)</sup>

---

19) Maria Ferguson & Kate Renner(2019).

20) Ginger.M.F. Daley(2020).

21) 국립나주박물관 홈페이지 참고.

22) 국립나주박물관 홈페이지 자료 및 국립나주박물관 2020. 11. 23. 보도자료 참고.



## IV. 경남지역 공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 1. 공립박물관 운영 기본방향

#### 1) 공립박물관의 기대 역할

- 해당 시군 대표박물관으로서 지역문화의 보존과 사회교육의 중심
  - 각 시군지역 공립박물관은 기본적으로 지역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증거 등을 수집·보존하고 전시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기본 기능을 수행해야 함. 이는 박물관의 기본 기능이자 공립박물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지역문화의 보존과 함께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독창성을 관람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교육함이 공립박물관의 역할임. 공립박물관의 경우 해당지역의 고유역사와 문화와의 관계성 속에서 역할 수행이 필요함이 많이 강조됨.<sup>23)</sup> 즉, 지역 고유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특화해서 전시 콘텐츠화 하고 그 전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관람객과 소통해야 함. 또한, 지역 고유문화를 지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역시 중요한 문제임.<sup>24)</sup> 이는 지역 사립박물관이 소장품정책이나 전시구성 등에서 지역 특화 콘텐츠 중심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보다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것과 비교됨
- 지역 대표 문화기관으로서의 지역 문화·관광의 허브 기능 수행
  - 지역 공립박물관은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박물관의 기본기능과 역할 수행에 더하여, 지역 문화발전을 선도하고 구체화하는 생활밀착형 문화복합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추가적으로 요구받고 있음. 단순한 관람시설이 아니라 각종 문화체험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기관으로서의 박물관 역할 요구는 향후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를 수용하고 더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함
  - 또한, 공립박물관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인프라로 많은 타 지역 방문객이 찾아오는 곳임. 지역 문화관광 육성을 위한 중요 인프라로서

23) 성진석(2009), pp.7-52.

24) 김종대(2014), pp.39-58의 p.41.

의 박물관의 역할 확대는 필요함. 지역 관광의 중심지인 박물관은 향후 지역 관광 관련 각종 정보 제공 및 각종 역사문화 투어프로그램 운영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지역박물관의 현재·미래를 선도하는 지역 대표박물관

- 지역 공립박물관은 지역에 있는 각종 박물관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선도기관이 되어야 함. 박물관의 새로운 발전 모델과 개념 도입, 그리고 정부의 관련 정책 실천<sup>25)</sup>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각종 지역 박물관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선구적인 모델이 되어야 함
- 이는 공립박물관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소통을 이끄는 역할 수행의 일환이 되며, 이러한 역할 수행에서 필요한 자원 확보가 사립박물관보다는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여건이 이를 뒷받침 함

## 2) 박물관 운영 기본방향 설정

- 경남지역 공립박물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향후 지향해야할 방향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음

□ 생활밀착형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및 접근성 확대

- 박물관은 지역 문화기반시설이자 사회교육기관으로 지역민의 문화향유 제고와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큰 역할을 담당해 오
- 최근 일과 삶의 균형에 따른 여가 문화수요 증가, 고령사회 가속화, 문화분권 등 박물관 여건환경의 변화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
- 평생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박물관의 역할 강화와 함께 주민 생활문화진흥의 주요 기관으로서의 역할 기능도 새롭게 부여됨
- 이에 박물관의 운영프로그램 다각화 및 이를 통한 주민 접근성을 크게 제고해야 함

---

25) 한 예로, 문화재청은 2020년 12월 포스터코로나 문화유산 미래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LED 조명교체 등 교육관과 박물관 등 전시관람 시설의 방문객 편의를 높이는 환경 친화적 문화유산 전시·관람·교육시설 정비 등이 추진됨. 이러한 박물관 관련 정부 정책의 추진에 지역 공립박물관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됨. 문화재청(2020), 2020년 12월 9일 관련 보도자료 참고.

## □ 4차 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 추진

-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물리적 공간 제약에서 탈피하여 온-오프라인의 접근성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소위 4차 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혁명 사회에서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박물관은 이제 ICT기술의 접목을 통한 전시 및 관람객 관리, 교육 등 다양한 박물관 영역의 변화를 필요로 하며, 관람객이 원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변화가 필요함. 이러한 변화는 관람객의 많은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관람객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필요로 함
- 박물관과 ICT 기술의 접목은 박물관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함께 관람객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보다 더 관람객 친화적인 박물관 환경을 도모할 수 있음. 다양한 ICT기술, 빅 데이터 등을 활용한 관람객 맞춤형 전시 콘텐츠와 관람객 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 □ 지역 대표박물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및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

- 박물관이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변화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박물관 자체의 역량강화가 반드시 필요함. 박물관의 자체 역량강화는 인적 자원 및 시설 측면의 강화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음
- 박물관의 능동적 변화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를 이끌어내고 실행할 박물관 인력의 확충과 역량강화 교육이 가장 중요함. 또한 공립 박물관으로서의 역할강화 및 이를 위한 지자체로부터의 자율적 운영 확대 역시 필요함
- 공립박물관으로서의 지역 고유의 특수성과 독창성을 강조하는 전시 및 교육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관람객을 유도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 역시 필요한 부분임
- 현재 대부분의 공립박물관의 경우 박물관 운영예산의 대부분이 지자체의 예산지원과 관람료에 의존하며, 기타 자체 수익사업은 거의 없음. 관람료의 경우, 국립박물관의 무료 관람료 정책에 부응하여 많은 공립박물관이 무료 관람료 정책을 펴고 있어 관람료에 의한 수입 역시 미미한 수준임. 참고로 사립박물관의 경우 예산상황은 더욱 열악함. 대부분 관람료 이외에는 고정적인 예산 재원이 부족하여 사재출연으로 부족분을 채우는 상황임

- 박물관 운영예산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의 다각화와, 이를 위한 다양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적극 전개함이 필요함

## 2. 공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 1) 박물관 차원

#### □ 지역 대표 문화기관으로서의 운영 프로그램 확대

- 소장유물의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박물관의 기본기능은 향후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이런 기본기능 수행 외에도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 지역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로서의 기능 수행, 즉 사회복합문화시설로서의 역할 수행도 요구됨
- 박물관이 기존의 전시교육기관으로의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 보다 더 지역사회의 문화적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능의 복합화와 역할 확대가 필요함. 특히, 군단위의 공립박물관의 경우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중심기관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 공간 측면의 장점을 적극 활용함이 필요함. 예를 들어 박물관의 강당이나 회의공간, 전시공간 등을 지역민에게 널리 제공하여 문화예술공연이나 전시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야 함
- 이를 위해 박물관의 전시 영역이나 소장품과 관계되는 지역 예술인의 공연전시 개최, 지역 문화예술동호인 창작 활동 공간 지원 및 발표 기회 제공, 강연회 개최 등 다양한 지역문화 전시 및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함이 필요함
- 또한, 노령화 사회를 맞아 강조되는 평생교육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박물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민과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역시 중요함<sup>26)</sup>
- 이러한 활동과 기능 확대를 통해 지역민이 박물관을 보다 친밀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자주 찾아오는 생활문화공간으로 변화함이 박물관의 원래 기본 기능의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26) 김중대(2014), 39-58쪽의 55쪽.

#### □ 박물관과 지역 문화예술기관과의 협업 강화

- 박물관이 복합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내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 기관들과의 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민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한 박물관과 지역 문화예술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민에게 필요한 문화예술 관련 각종 사업과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필요한 문제 등을 같이 고민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상호간 역할 분담이 가능토록 해야 함
- 박물관은 지역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 등을 위한 장소 대여가 가능하고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기획과 연구 기능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음. 박물관의 전시나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에서 지역 문화예술을 충분히 반영할 여지가 있으며 이를 위한 문화예술단체나 기관의 협조 지원과 협업이 분명히 필요함

#### □ 박물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ICT 기술 적용 확대 및 고유 콘텐츠 개발 강화

- 4차 혁명,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환경 등 모든 박물관은 이제 기존의 대면 활동에 의한 전시나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기술환경을 접목하여 생존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환경은 박물관이 많은 사람이 원격으로 박물관 소장품과 각종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sup>27)</sup>
- 이러한 환경속에서 지역 공립박물관 역시 변화하는 기술환경을 조속히 수용하고 이를 전시나 교육활동에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적 전통이나 소장품의 특징을 토대로 관련 고유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ICT 기술과 접목하여 흥미롭고 유익한 전시나 교육프로그램 결과물을 도출해야 함
- 한편, 이런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박물관은 자체적인 혁신과 역량 강화, 관련 시설 인프라의 보완이 계속되어야 함

#### □ 박물관 수익선 다변화와 홍보를 위한 마케팅 기획 및 실천 강화

- 현재 대부분의 공립박물관의 경우, 운영재원의 대부분을 지자체의 지원

27) Kristin M. Szylvian(2020).

으로 마련함.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는 박물관의 경우에도 입장료 수입은 얼마 되지 않아 운영비 대부분을 지자체로부터 지원 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박물관의 보다 능동적인 박물관 활동 추진에 일정부분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박물관(특히 공립박물관)의 수익 창출은 일정부분 한계가 분명히 있으며, 비영리기관인 박물관의 기본 성격상 무리한 수익 창출 활동은 권장되지 않음도 사실임
- 다만, 박물관의 운영과 지역민의 박물관 이용과정상에서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은 다변화하여 박물관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충분히 가능하며 이는 박물관 활동 강화를 위한 토대로 필요한 일임
- 박물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소규모 카페 운영 및 고유 문화상품 개발 판매, 박물관 시설 대여<sup>28)</sup>, 박물관 입장료 연계 정기 회원권 제도 도입 등의 수익성 사업 전개가 가능함. 물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적지만 박물관을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부분임
- 참고로, 국립중앙박물관은 2020년 7월 스마트폰 케이스와 무선이어폰 케이스에 운학 문양을 새긴 ‘청자상감운학문 굿즈’를 온라인으로 판매하여 많은 호응과 수익을 올리고 있음. 온라인 뮤지엄 샵의 동년 9월 매출이 8월 대비 약 200% 이상 증가함. 이러한 예는 해외박물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으며, 미국 박물관상점협회(MSA)에 따르면 미국 박물관들은 평균적으로 5%에서 15%가량의 매출을 기념품 관련 사업으로 올리고 있음<sup>29)</sup>
- 박물관 수익성 사업의 전개와 함께 박물관의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함. 각종 SNS매체를 이용하여 지역민 그리고 관람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여 박물관을 홍보하고 박물관으로 유인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박물관 홍보마케팅은 개별 공립박물관 차원에서는 물론 지역 공립박물관이 연합으로 관련 홍보 및 마케팅작업을 전개함도 필요함

28) 한 예로, 해외 많은 박물관의 경우 박물관 로비나 정원 등을 결혼식이나 파티를 위한 장소로 대여해주는 경우도 있음. 시카고 필드 뮤지엄 홈페이지나 런던 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참고

29) 주간동아(2020), 2020년 10월 03일 관련 기사 내용 참고 인용.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샵([www.museumshop.or.kr](http://www.museumshop.or.kr)) 자료 인용.

〈그림 4-1〉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샵 ‘청자상감운학문 굿즈’

- 박물관의 기능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력과 조직체계 구성
  - 박물관의 주요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인력자원과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함
  - 박물관의 기본 기능의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박물관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박물관 운영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박물관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필수 인력인 학예인력의 충분한 확보는 박물관 운영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박물관교육 전문인력(에듀케이터)의 충원 역시 필요함. 현재는 대부분의 박물관에서 학예인력이 박물관 교육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으나 박물관 교육 영역의 중요성과 역할의 확대, 그리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기획 운영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박물관 교육의 전문화를 도모해야 함.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박물관에서의 박물관교육 전문가의 역할과 활동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sup>30)</sup>
- 경남지역 공립박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역 공립박물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먼저 개별적인 박물관의 운영 개선 노력이 먼저 요구되나 현실적으로 이를 온전히 실행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음
  - 운영예산의 확보나 학예인력의 충원 등은 개별 박물관 차원에서 우선적

30) 최병식(2010), 441-446쪽.

으로 해결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박물관 교육이나 전시, 홍보 등의 분야에서의 타 박물관과의 공동 협업은 충분히 가능하며 많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하나의 예로, 경남지역 가야문화 특별전 등을 가야 유물 소장 지역 공립박물관이 상호 연계하여 기획 및 전시를 마련하고 참여 박물관별로 일정기간 순회전시 하거나, 지역별 관련 공립박물관 학예사가 직접 안내하는 경남지역 가야유적 탐방 투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의 지역 공립박물관간의 공동기획과 운영이 가능한 분야가 많음
- 이러한 일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논의할 지역 공립박물관 협력 네트워크를 권역별·소장품영역별 등 필요한 다양한 수준에서 구축하여 적극 운영함

지역 공립박물관 활성화를 이루는 하나의 큰 움직임이 될 수 있음

## 2) 경남도·시군 지자체 차원

### □ 박물관 재정 지원 강화 및 운영 자율성 확대 보장

- 지역 공립박물관의 운영재정은 대부분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에 의존함. 이에 지자체는 공립박물관의 가치와 그 역할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예산지원을 충분히 확대해야 함. 참고로 지역 시군의 공립박물관 운영예산 지원 현황을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4-1과 같음

(표 4-1) 경남시군 2020년도 박물관 운영지원 예산 현황 예

(단위: 천원)

시 군 명	박물관 운영 지원 예산
통영시	319,097
밀양시	497,206
거제시	위탁운영(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양산시	2,208,267
의령군	682,148
함안군	2,247,563
남해군	691,540
함양군	217,105
거창군	320,799
합천군	280,177

주) 2020년도 본예산 기준. 공립박물관 각 1개소씩을 보유한 경남 시군을 대상으로 하여 예산지원 현황을 참고로 제시함.



- 이와 함께 박물관의 운영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함. 박물관이 보다 자유로운 운영 환경속에서 박물관의 고유 특성과 학예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박물관 변화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지역 공립박물관장의 전문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지자체의 박물관 담당 행정직제 개편이 요구됨<sup>31)</sup>. 현재 공립박물관의 경우 일반 행정인력이 박물관 운영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학예 전문인력이 운영을 담당하는 경우에도 박물관 담당 6급에<sup>32)</sup>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박물관 운영에 대한 충분한 자율성, 독자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운영예산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 공립박물관 운영 공인 인증 및 개선책 지원

- 현재 문체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공립박물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남지역 공립박물관 중 일부 박물관은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임
- 공립박물관 인증제도는 박물관의 최소한의 운영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박물관 인증은 박물관 기능과 역할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임
- 지역 공립박물관 중 미 인증 박물관의 경우 조속히 관련 여건을 구비하고 인증 평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력 및 시설 보강, 소장품 확충 및 전시교육프로그램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해당 지자체 차원에서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한편, 이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당 지자체와 박물관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증에 따른 박물관 지원책이나 지자체에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문체부와 경남도 차원에서 적극 강구해야 함

31) 문체부가 2019년 발표한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 (2019-2023)에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대상 전문 관장 채용 권고를 통해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중장기계획 수립, 조례개정, 전문관장 임명 등을 이행한 지자체에 대해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사전평가, 평가인증 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음. 또한, 김종대는 전북지역 공립박물관의 활성화방안 연구에서 공립박물관 생존전략으로서의 대응방안 중의 하나로 기관장의 전문성을 말하고 있음. 김종대(2014), pp.39-58의 p.53-54 참고

32) 참고로, 양산시립박물관의 경우 학예연구관이 관장직을 맡아 운영을 담당하는 전문관장제를 시행하고 있음. 2020년 공립박물관 인증평가에서 동 박물관이 경남도내 공립박물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을 의미 있게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경남도 공립박물관 통합 정보 사이트 운영

- 경남지역 공립박물관을 상호 연계하여 필요 정보 및 각종 안내홍보를 담당할 공립박물관 통합 정보 사이트를 운영토록 함
- 이를 통해 경남지역 공립박물관의 위치와 전시·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그리고 공립박물관과 지역 문화자원에 대한 정보, 지역 문화예술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토록 함
- 이는 개별 공립박물관 차원을 넘어 지역 공립박물관 전체를 연계하여 다양한 관련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박물관간 상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경남도 공립박물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 지원 공모사업 전개

- 지역 공립박물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박물관을 찾게 하는 주요 동기인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양적 수준을 한층 제고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전시 및 교육 콘텐츠의 새로운 개발과 시설적인 측면의 보완을 위한 많은 비용이 요구되나, 공립박물관의 경우 이를 해당 지자체에서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각 지자체의 예산상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남도차원의 공립박물관 지원 공모사업을 전개하여 전시나 교육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개별 박물관에 대해 적절히 지원해야 함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콘텐츠산업지원센터와 지역 공립박물관간의 협업 강화

- 경남지역 콘텐츠산업 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공립박물관의 전시나 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업무를 지원함도 필요함
- 지역 공립박물관이 필요한 전시나 교육콘텐츠 개발 및 ICT 기술 적용 프로그램 개발 등에 있어서 지역 전문기관의 참여를 연결하고 필요시 지역 업체와의 공동개발 등을 지원하는 등 동 센터의 지역 공립박물관과의 협업 또는 지원활동은 반드시 필요함
-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공립박물관과 지역 콘텐츠산업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창출할 수 있음

## 참고문헌

- 김연희(2019), 변화하는 뮤지엄 마케팅 (루브르 박물관 자존심을 버리다), 박물관 뉴스, 한국박물관협회.
- 김재홍(2018), 관람형에서 참여형 전시로 전환하는 박물관. 한국사연구(183), 37-67쪽.
- 김종대(2014), 전북지역 공립박물관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박물관학보, 39-58쪽.
- 매거진군산(2019)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전반기 관람객 30% 증가 -연 100만명 관람으로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다, 2019년 8월호.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 성진석(2009), 지역공립박물관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신창희·방문식(2019), 지역 공립박물관 콘텐츠 개발과 활용 - 인제산촌민속박물관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제56호, 7-52쪽.
- 오정심(2013), 국내 뮤지엄 개념 사용현황 분석과 미래 발전방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3(11), 644-654쪽.
- 이보아(2007), 박물관학 개론, 김영사.
- 최병식(2010), 뉴 뮤지엄의 탄생. 동문선.
- Ginger.M.F. Daley(2020), Visitor-Centered museums: Surviving the 21st Century. Theory and Practice: The Emerging Museum Professional Journal, Vol.3. [http://articles.themuseumscholar.org/tp\\_vol3\\_daley](http://articles.themuseumscholar.org/tp_vol3_daley).
- Kristin M. Szylvian(2020), The State of the Museum Field in 2020, as Viewed by Students, AAM museum News (Posted on Dec 9, 2020). <https://www.aam-us.org/2020/12/09/the-state-of-the-museum-field-in-2020-as-viewed-by-students/>.
- Maria Ferguson & Kate Renner(2019), A Museum Without Walls: Community Collaboration in Exhibition 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 The Emerging

Museum Professional Journal, Vol. 2.

[http://articles.themuseumscholar.org/tp\\_vol2fergusonrenner](http://articles.themuseumscholar.org/tp_vol2fergusonrenner).

## 부록 : 2020년 1월 기준 경남지역 공립박물관 주요 기본현황33)

영역	1. 기본현황					2. 시설현황			
	박물관 명칭	박물관 주소	1층/ 2층/ 미등록	개관연월일	특수 유형	건물 연면적 (㎡)	전시실		수장고
							상설 전시실 면적 (㎡)	기획 또는 특별 전시실 면적 (㎡)	
1	거제어촌민속전시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안로 41	1층	2003.10.15.	0	2,680	1,137	150	56
2	거창박물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181	1층	1988.05.20.	0	1,532	846	143	100
3	경상남도 신림박물관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1층	2001.11.01	0	5,857	2,494	89	236
4	고성공룡박물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지리만로 618	1층	2004.11.09	0	3,462	1,341	106	47
5	고성박물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송화로 113번길 50	1층	2012.05.17	0	4,536	626	380	219
6	고성수서전시관(후관)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1116	미등록	2002.04.23	X	763	763		
7	고성자연사박물관(후관)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1116	미등록	2000.07.31	X	863	863		85
8	고성탈박물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읍대2길 23	1층	2005.12.23.	0	1,872	394	215	96
9	김해목재문화박물관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로27번길 5-49	2층	2015.11.16.	0	2,073	370		22
10	김해분청도자박물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275-35	2층	2009.05.15.	0	1,357	272	84	36
11	김해민속박물관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261번길 35	1층	2005.10.01.	0	877	577		44
12	김해화포천습지생태박물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183-300	2층	2012.09.14.	0	828	343	37	11
13	남영기념관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남영로 311	미등록	2004.08.18	X	723	370		70
14	남해유배문학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745	1층	2010.11.01	0	2,416	989	219	99
15	대성동고분박물관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26	1층	2003.08.29.	0	3,064	1,417	826	216
16	독면사배유지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독화로 887	미등록	1997.01.01.	X	954	474		

33)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 수정 인용함. 본 연구가 종결된 이후 문체부의 2020년 1월 기준 최신 통계자료가 발간되어 이를 부록으로 추가 수록함. 참고로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연구기간 중 이용 가능했던 2019년 1월 통계 기준(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림.

연번	1.기본현황					2.시설현황			
	박물관 명칭	박물관 주소	1층/ 2층/ 미등록	개관연월일	특별 유형	건물 연면적 (㎡)	전시실		수장고
							상설 전시실 면적 (㎡)	기획 특별 전시실 면적 (㎡)	
17	밀양시립박물관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100	1층	1974.03.15.	0	5,289	1,789	162	522
18	박건전쟁기념관	경상남도 창원군 남지읍 월상길 27	2층	2004.06.25.	0	678	330		52
19	봉황동유적매추단면전시관	경상남도 김해시 가리로 63번길 26	미등록	2006.10.10.	X	92			
20	산청박물관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산수로 1064	1층	2011.04.06.	0	704	241	73	55
21	산청한의학박물관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555번길 61	1층	2007.05.03	0	2,448	687	108	184
22	성산패총전시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로 137	미등록	1979.06.	X	972	491		11
23	안동문화의집	경상남도 김해시 삼인로 72	2층	2002.03.04	0	413			
24	양산시립박물관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로 78	1층	2013.04.11.	0	5,572	1,149	304	403
25	웅천도요지전시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도로로 198	1층	2011.11.23.	0	1,260	428		58
26	의병박물관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1-25	1층	1993.04.21.	0	2,745	739	129	396
27	지리산팔차산토벌전시관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536	미등록	2002.05	X	480	480		
28	지리산역사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1438	미등록	2002.06.03.	X	149	131		
29	진영문화의집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20번길 11	2층	1999.12.20.	0	1,052			
30	진주충동기문화박물관	경상남도 진주시 대평면 호반로 1353	1층	2009.06.11.	0	2,490	993		145
31	창녕박물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밀로 34	1층	1996.03.02.	0	2,227	548	142	216
32	창녕비봉리매추전시장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비봉길 7	2층	2017.04.01.	0	437	299		11
33	창원시립마산박물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105	1층	2001.09.12.	0	1,572	479	90	224
34	창원시립진해박물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앙동로 52	미등록	1998.07.	X	1,543	283		11
35	창원역사민속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397번길 25	1층	2012.08.24	0	1,370	559	261	555
36	통영시립박물관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65	1층	2013.09.26	0	1,692	466	161	168

연번	1.기본현황					2.시설현황			
	박물관 명칭	박물관 주소	1층/ 2층/ 미등록	개관연월일	등록 응답 현황	건물 연면적 (㎡)	전시실		수장고
							상설 전시실 면적 (㎡)	기획 또는 특별 전시실 면적 (㎡)	
37	하동야생차박물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571-25	1층	2017.03.20.	0	2,363	495	143	127
38	함안박물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고분길 153-31	1층	2003.10.30	0	1,908	595	97	182
39	함양박물관	경상남도 함양읍 함양읍 필봉사길55	1층	2014.12.18.	0	1,900	280	403	186
40	함천박물관	경상남도 함천군 쌍책면 황강옥전로 1558	1층	2004.12.09.	0	2,933	848	63	144
41	함안독립운동가 추기철목사기념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로 174	미등록	2015.03.24	X	1,098	344	90	90
42	진주이룡발자국전시관	경상남도 진주시 영찬강로 68번길 22	1층	2019.11.19	0	1,757	344		456
43	김해시수도박물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1347	2층	2019.01.02	0	495	135		26
44	김해문화의집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71번길 24-18	2층	1996.12.09.	0	772			
45	진영역철도박물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145-1	2층	2019.10.07.	0	303	158	39	14
46	청마기념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방학2길 6	2층	2008.04.18.	0	526	206		20

연 번	1. 기본현황 박물관 명칭	3. 소장 자료 현황		4. 관람인원	5. 인력현황					
		소장자료			학예인력			일반인력		
		건	수		학예직공무원		계약직 등 비정규직	일반직 공무원	계약직 등 비정규직	
					학예 연구관	학예 연구사				
1	거제어촌민속전시관	551	2,120		144,521		1		9	
2	거창박물관	8	1,348		23,100		1		5	
3	경상남도 신림박물관	1,225	3,215		317,477			1	4	1
4	고성공룡박물관	169	169		253,695		1		5	9
5	고성박물관	1,888	2,165		54,140		1		3	1
6	고성수석전시관(휴관)		1,714		222,354					
7	고성자연사박물관(휴관)		287		222,354					
8	고성탈박물관	1,020	1,084		9,189		1		3	1
9	김해목재문화박물관	160	188		62,270			1		8
10	김해분청도자박물관	72	72		23,878				1	3
11	김해민속박물관	1,548	1,855		31,351		1	1		1
12	김해화포천습지생태박물관	94	94		33,313				1	2
13	남영기념관	39	418		53,730					
14	남해유배문학관	1,349	2,636		37,050		1		1	3
15	대성동고분박물관	8,394	8,775		334,947			2	3	
16	목면시배유지				26,281					
17	밀양시립박물관	8,311	10,882		50,685		2		3	9
18	박진전장기념관	79	120		19,424		1		1	
19	봉황동유적매충단면전시관				14,000					
20	산청박물관	187	202		70,979				2	1



연 번	1. 기본현황  박물관 명칭	3. 소장 자료 현황		4. 관람인원	5. 인력현황				
		소장자료 수			학예인력			일반인력	
					학예직공무원		계약직 등 비정규직		
					학예 연구관	학예 연구사			
	건	점	연관관인원 (명)		공무원 연구원 (일반직, 전문 계약직, 별정직 등)	계약직 등 비정규직	일반직 공무원	계약직 등 비정규직	
21	산청현의학박물관	1,114	1,702	202,130			1	4	10
22	성산폐충전시관		1,290	10,490				2	
23	안동문화의집			17,795				2	1
24	양산시립박물관	6,570	9,153	143,993	1	2		8	12
25	웅천도요지전시관		391	23,015		1		4	2
26	의병박물관	652	811	233,157		2		1	
27	지리산백제신도별전시관			9,907					1
28	지리산역시관	1	48	3,509				1	1
29	진영문화의집			41,000				1	1
30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261	261	61,577		1		3	4
31	창녕박물관	4,667	7,235	50,877		1		2	
32	창녕비룡리폐충전시관	63	87	5,560		1			
33	창원시립마산박물관	1,550	2,481	67,435			2	2	
34	창원시립진해박물관		556	95,536					1
35	창원여시민속관	2,144	2,345	61,167		1		5	
36	통영시립박물관	4,333	7,314	23,140			1	2	
37	하동야생치박물관	286	595	54,206		1		1	4
38	함안박물관	552	619	57,599			1	6	1
39	함양박물관	899	1,216	70,418			1	1	2
40	함천박물관	211	347	25,000			2		3

연 번	1. 기본현황	3. 소장 자료 현황		4. 관람인원	5. 인력현황				
	박물관 명칭	소장자료		연관참인원 (명)	학예인력			일반인력	
		수			학예직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계약직 등 비정규직	
		건	점		학예 연구관	학예 연구사			공무원 (일반직, 전문 계약직, 별정직 등)
41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65	21,690					1
42	진주인물발자국전시관		358	19,780					
43	김해시수도박물관	120	1,233	11,676		1		3	1
44	김해문화의집			37,560				1	1
45	진영역철도박물관	102	17,871	7,600			1	2	
46	청마기념관		209	39,795		1		1	1

## 경남지역 공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인	쇄	2020년 12월 28일					
발	행	2020년 12월 31일					
발	행	인	홍	재	우		
발	행	처	경	남	연	구	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 (우 : 51430)

248 Yongji-Ro, Uichang-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51430

Tel (055)267-7447. Fax (055)266-2079

Homepage : [www.gni.re.kr](http://www.gni.re.kr)

ISBN : 978-89-8351-715-9

---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